

2020 ANNUAL REPORT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2020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2020 연간 활동보고서

2020 ANNUAL REPORT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12



28



52



66



2020 ANNUAL REPORT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CONTENTS

인사말/축사	04	01. COVID-19	12	02. SDGs와 기후 변화	28	03. 평화와 안보	52	04. 여성과 청소년	66	05. 부록	76
재단 소개	06	'Global Health Governance & SDG-3' 연구 보고서 발간	14	'Redesign our future' 연구 보고서 발간	30	반기문 평화안보포럼 협력 및 참여 사업	54 56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Young' 교육자료 개발	68	재단 방문 주요 해외 인사 반기문재단 기금내역	78 82
Vision	07	ADB와의 공동 사업	16	협력 및 참여 사업	34	영상 메시지	65	반기문재단-한마음교육봉사단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70	주요 해외 언론 기고문	84
Mission	08	COVID-19 대응 방역 물품 기부	18	영상 메시지	51			미혼모가정 지원 사업	71		
조직도	09	협력 및 참여 사업	20					협력 및 참여 사업	72		
연혁	09	영상 메시지	27					영상 메시지	75		
함께 하는 사람들	10										

인사말



반기문 이사장

現)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前) 제8대 UN 사무총장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을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반기문재단이 걸어왔던 작년 한 해의 여정을 ‘2020 Annual Report’에 담았습니다.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여러분의 소망과 염원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지혜와 용기, 희망과 도전의 가치에 터잡은 활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바람에 끊임없이 부응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기적이며 쏠 인류적인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 기후위기와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거대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 한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류는, 기후위기에 운명공동체적 자세로 대응해야 합니다.

2016년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UN SDGs는 더 많은 정치적 의지와 여성과 청년의 폭 넓은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기문재단에서 발표한 SDGs 연구보고서 ‘Redesign Our Future’를 통하여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2025년 SDGs 특별 정상회의’개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은 그 중심축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세계는 올 한 해, 다양한 정상 간 회의를 통하여 담대한 전진을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지구촌의 공존·상생·미래는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을 둔 강력한 연대와 긴밀한 협력으로 열어가야 합니다.

COVID-19 Pandemic의 극복도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저와 반기문재단이 변화와 도전의 과정에서 의미있는 일익을 담당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반기문 **반기문**

축사



김항식 고문

現) 호암재단 이사장
前) 국무총리
前) 감사원장

2020년은 78억 인류에게 공포의 한 해였습니다. 미증유의 COVID-19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격리와 봉쇄, 그리고 각자도생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대재앙의 극복을 위해 연대와 협력, 그리고 배려와 책임이 더 소중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번영과 발전은 자연과 공존하고 상생할 때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반기문재단이 작년 한 해, 이러한 교훈과 가치에 터잡아 세상을 향해 지혜와 용기를 전하는데 많은 활동을 펼쳤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크게 응원합니다. 올 해에도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와 안전, 기후환경과 공중보건, 지속가능발전 등 지구촌의 과제를 풀어가는데 많은 기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2020년 보고서 발간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합니다.



유종하 고문

現) ahead korea 회장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前) 외무부 장관

올해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출범한 지 2년이 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초에 수립된 재단의 신규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기후변화와 보건안보 등 핵심적인 분야에서는 2020년 한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2019년 재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연례 보고서’가 발간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국제평화와 안보 등 재단의 중점사업들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나아가, 반기문 재단이 유엔의 3대축인 평화안보와 인권, 개발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일등 재단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빕니다.



공로명 고문

現) 동아시아재단 상임고문
前)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前) 외무부 장관

인류가 지금까지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것은 누구하고도 ‘협력 (cooperation)’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감염병의 빈번한 발생은 그동안의 협력이 매우 잘 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보다 나은 미래”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연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재단의 2020 Annual Report가 발간된 것을 축하하며, 그동안 반기문 이사장이 유엔사무총장 재임시 열성으로 추진하였던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노력에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동건 고문

現)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前) 국제로타리재단 이사장
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반기문 이사장님의 UN사무총장 재직 당시 채택된 SDGs의 달성 기한이 약 10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반기문재단은 SDGs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SDGs 달성을 위해 남은 약 10년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통찰력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최근 기업 환경이 ESG 등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기업 경영 전략과 이행에 있어 SDGs를 내재화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향후 반기문재단의 역할이 더욱 기대됩니다. 2020 연례 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단소개

반기문재단은,
더 평등하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세상을 향하여,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더 공정하고 권리에 기초한 세상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비전

우리가 추구하는 지구촌의 미래는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반기문재단은 세계의 그 어느 곳이나,
세계시민 그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분쟁과 재해의 현장에서
원인을 캐고 해결의 씨앗을 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서 절망의 굴레를
벗기고 희망의 날개를 달겠습니다.

포용과 담대함을 날줄과 씨줄로 삼아서
갈등과 결핍을 붙들어 맺 조각들을
끊임없이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역량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변화의 물꼬를 틀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공감하는
시대정신의 창출을 주도하겠습니다.



반기문재단은 통합과 소통, 공존과
현신의 가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재단의 모든 활동에는 지구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의 열정이 담겨질 것입니다.
세계와 함께 세계시민을 위하여,
번영과 협력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반기문재단은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세계인의
플랫폼입니다.

지식이 생산되고,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가 교류되는 또 하나의 세상을
탄탄하게 세워 보겠습니다.

미션



- 첫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철학과 비전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국내외 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의 구현과 파리후협약의 이행,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학술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에 열정을 바칠 것입니다.
- 둘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이를 통한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 증진**에 관한 활동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 셋째,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안겨줘야 할 미래의 비전, 그리고 마땅히 누리게 해야 할 **인권과 권익에 관한 미래지향적 가치정립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넷째,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활동은 물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 다섯째,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국내외 시민단체, 학술단체와 교육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통하여 인재의 양성과 세계시민교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조직도



연혁

2019

- 03.05 반기문재단 발기인 총회
- 04.15 재단법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설립 허가(외교부)
- 04.18 재단 등기 완료
- 05.10 반기문재단 창립 대회
- 08.05 KINGOLD Group MOU
- 09.30 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 10.30 Boao Forum for Asia MOU

2020

- 01.28 제1차 반기문평화안보포럼
- 04. Broad Group MOU
- 07.29 상반기 활동보고서 발간
- 11.30 Redesign our Future 발간
- 12.04 한마음교육봉사단 MOU

함께 하는 사람들

고문



김항식 고문

現) 호암재단 이사장
前) 국무총리
前) 감사원장



공로명 고문

現) 동아시아재단 상임고문
前)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前) 외무부 장관



유종하 고문

現) ahead korea 회장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前) 외무부 장관



이동건 고문

現)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前) 국제로타리재단 이사장
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사회



반기문 이사장

現)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前) 제8대 UN 사무총장



김숙 상임이사

現)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상임이사
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장
前) 주UN대사



이봉화 감사

現)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前)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前) 사회보장정보원 초대원장



김명혜 이사

現)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성욱 이사

現)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現) KBS 북한문제 객원해설위원
前)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
前) 민주평통 사무처장



손지애 이사

現)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現)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前) 청와대 해외홍보비서관



안영수 이사

現)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총장
前)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前)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엄기영 이사

現) 한반도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소통위원장
前) MBC 사장



유명환 이사

前) 세종대학교 이사장
前) 외교통상부 장관
前) 주일대사



유승민 이사

現)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現) 국제탁구연맹(ITTF) 집행위원
現) 대한탁구협회(KTTA) 회장
現)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ISF) 이사장



이상희 이사

現) 국가전략연구원 명예이사장
前) 국방부 장관
前) 합참의장



정내권 이사

現) Global Energy Prize 심사위원장
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前) 기후변화 대사

운영위원

(가나다순)

강웅식 운영위원

前) 주멕시코 대사
前) 대전광역시 국제관계 자문대사

강천석 운영위원

現) 조선일보 논설고문
前) 조선일보 주필
前) 조선일보 논설주간 이사

강태선 운영위원

現)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前) 서울특별시체육회 부회장
前) (사)대한산악연맹 부회장

권태신 운영위원

現)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前) 국무총리실장(장관급)
前)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김상기 운영위원

現) 예비역 육군 대장
前) 특수전사령관
前) 제42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김성환 운영위원

現)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前) 제36대 외교통상부 장관
前) 주오스트라리아 및 빈 국제기구대표부대사

김용학 운영위원

前) 제18대 연세대 총장
前) 연세대 사회대학장
前) 연세대 입학처장

김종섭 운영위원

現) 삼익악기 회장
現) 서울대학교 문리대 총동창회 회장
前)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김종훈 운영위원

現)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前) 제19대 국회의원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지용 운영위원

現) 국민대학교 이사장
前) 대한수영연맹 회장

김천식 운영위원

現) 사단법인 통일생각 이사장
前) 제20대 통일부 차관

김형준 운영위원

現) 명지대 인문교양 교수
前) 국회 개헌특위 위원
前) 한국 선거학회 회장

김홍일 운영위원

現)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변호사
前) 제25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손명세 운영위원

現) 라이트펀드 이사장
現)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現) WHO 국제보건규칙 제정위원회 의원

손연재 운영위원

前) 리듬체조 국가대표

송호근 운영위원

現) 포스텍 석좌교수
前) 서울대 석좌교수

안청시 운영위원

前)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前)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양창수 운영위원

現)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現) 안양대 법전원 석좌교수
前) 대법원 대법관

오병주 운영위원

前) 국무총리실 차관
前) 서울지검 부장검사

오연천 운영위원

現) 울산대 총장
前) 서울대 총장

유동근 운영위원

現) 한국방송예술인총연합회 초대 이사장
前) 제23대 한국방송기자협회 이사장
前)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유종근 운영위원

現)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現) 유엔 아카데미팩트 한국협회 이사장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윤덕민 운영위원

現) 한국외대 석좌교수
前) 국립외교원장
前) 대통령 외교안보정책 자문위원

이각범 운영위원

現) KAIST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
前) 제14대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이강연 운영위원

現) 한미협회 부회장
現)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고문
前) 관세청 차장

이대봉 운영위원

現) 학교법인서울예술학원 (서울예고, 예원학교) 이사장
現) 참빛그룹 회장
現) 재단법인이대음악장학회 이사장

임성준 운영위원

現) Dentons Lee 특허법률사무소 상임고문
前) 주캐나다 대사
前)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한비아 운영위원

現)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現)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前)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팀장

사무국

박일호 실장

現) 경영행정실장
前) 주오슬란트 총영사

이병용 실장

現) 기획정책실장
前)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최성주 실장

現) 외교안보실장
前) 주폴란드 대사

김봉현 자문

現) 반기문재단 자문역
前) 주호주 대사

정태용 디렉터

現)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디렉터
前) ADB 기후 변화 전문가



인사말/축사



재단 소개



COVID-19



SDGs와 기후 변화



평화와 안보



여성과 청소년



부록

Global
Public
Health

BKM
initiative

SDGs

01

COVID-19

'GLOBAL HEALTH GOVERNANCE & SDG-3'
연구 보고서 발간

ADB와의 공동 사업

COVID-19 대응 방역 물품 기부

협력 및 참여 사업

영상 메시지



'Global Health Governance & SDG-3' 연구 보고서 발간



사업 배경 및 목적

- COVID-19 극복 이후 국제보건의 글로벌 공조 체제 검토 및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COVID-19의 SDGs에 대한 영향 분석, 특히 목표 3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국제적인 이행 및 융합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사업 내용

- 국내외 보건의료체계 분석 및 평가
- COVID-19에 관한 5개국의 대응 사례연구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 독일)
- SDG-3와 연계한 Global Public Health 파트너십 구축
- Global Public Health System 및 Governance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 체계와 권고사항 모색



국내외 보건의료체계
분석 및 평가



Global Public Health
파트너십 구축



새로운 국제협력
체계와 권고사항 모색

추진 일정

- 2020년 5월, 착수보고회 완료
- 2020년 6월, 1차 자문회의 완료
- 2020년 7월, 2차 자문회의 완료
- 2020년 8월, 3차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 완료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4
2. Response to COVID-19: ROK case	6
2.1 Governance	6
2.2 Response in Health Sector	11
2.3 Economic Response	14
2.4 Social Response	17
3. Country Assessment	20
3.1 Chinese Taipei	20
3.2 Singapore	26
3.3 People's Republic of China	31
3.4 Germany	34
4. Global Public Health Partnership	39
4.1 Platform for Rapid Response to Health Emergencies	39
4.2 Platform for Sustainable Health Management Solutions	44
5. Key Messages	50



Key messages

1. 포스트 COVID-19 시대에 맞는 SDGs 프레임 워크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동시에 새로운 SDGs 프로그램을 통한 전 세계적 전염병 재발의 대비 필요성 강조
2. COVID-19는 세계의 생태 위기에 대한 모닝콜로서 기후위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 강조와 함께 기후변화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행동 촉구
3.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시스템 활성화와 함께 UN 사무총장이 주도하여 WHO 및 UN 기구와 함께 미래의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취해야함
4. 현재 기존의 자원과 재정이 COVID-19 대응에 집중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해지는 보건 및 교육 부문을 포함한 많은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스트 COVID-19 시대에 맞는 조정된 자원과 재정의 접근방식 확보
5. COVID-19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 이는 과학과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로 첨단 ICT 기술과 플랫폼 운영을 결합하여 글로벌 위기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함
6. 한국을 비롯하여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들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유지해 왔으며, 시민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첨단과학과 ICT를 통하여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한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연구할 필요성 강조

ADB와의 공동 사업



사업 배경 및 목적

- COVID-19 대응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는 'BKM initiative: 코로나 대응 글로벌 플랫폼'
- COVID-19 대응을 위한 다자기구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랫폼 구축
- Pandemic(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단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대응 체제 개발

사업 계획

- COVID-19에 관한 대한민국의 대응 사례연구
- 두 가지 플랫폼 구축



단기 신속대응:
Platform for Rapid Response
to Health Emergencies
(PRRHE)



장기 제도적 접근:
Platform for Sustainable
health Management
Solutions (PSHMS)

사업 실적

- 2020년 4월 22일 온라인 회의(재단: 김숙 상임이사, ADB: Bambang Susantono 부총재)
- 2020년 6월 16일 온라인 회의(재단: 반기문 이사장, ADB: Bambang Susantono 부총재)를 통해 ADB와의 세 가지 협력 분야 합의: COVID-19 공동 대응 / 역내 지식 공유 / 대응 역량 증진
- 1차 협력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COVID-19에 관한 대응 사례연구("ASSESSMENT OF COVID-19 RESPONSE IN THE REPUBLIC OF KOREA")를 ADB와 공동으로 완료



Introduction

COVID-19는 우리의 상호 연결된 세상을 뒤집고 불평등을 야기했으며 사회경제적 긴장을 악화시켰다. COVID-19의 범람은 국가의 규모, 경제적 위치, 또는 기술력에 관계없이 어떤 국가도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는 초연결 현대사회와 일치하는 새로운 전 세계의 협력과 연대, 파트너십, 글로벌 거버넌스와 위기 관리 대응 접근 방식의 수립을 요구한다. 과학자와 전문가의 의견과 경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한 국가 간 효과적인 정책과 모범사례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를 위한 글로벌 정보기술 기반 플랫폼 구축은 모든 국가에서 COVID-19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과학 정보와 지속 가능한 정책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돕는다.

반기문재단은 대한민국의 COVID-19에 관한 대응 사례연구 ("ASSESSMENT OF COVID-19 RESPONSE IN THE REPUBLIC OF KOREA")를 통해 COVID-19에 대한 한국의 대응 평가와 함께, 한국의 3T(Test, Trace, Treat) 방식과 경제적 및 사회적 대응과 같은 성공적인 대응의 중요한 요소를 제시했다.

'ASSESSMENT OF COVID-19 RESPONSE IN THE REPUBLIC OF KOREA'는 강력한 국경 통제와 자국민 봉쇄 정책 없이도 증명된 한국의 사례를 COVID-19 팬데믹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위한 국가적 모델 중 하나로 연구하였다. 팬데믹 관리에 있어 대한민국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유지했으며, 위기 상황 대응의 효율성 극대화에 있어서 첨단 과학 기술과 ICT 기술 적용이라는 독특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COVID-19의 발발에 대해 조사하고 뒤이어 대한민국 내 팬데믹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 연구를 다뤘다. 개인정보에 대한 예로, 일부 국가에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가 민감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나, 대한민국에서의 개인정보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엄격하게 보호되었다.

이러 세부 사례를 제시하여 진단·역학조사·치료·투명성이라는 COVID-19 대응에 관한 네 가지 핵심요소를 자세히 다루며 대한민국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COVID-19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대응을 다뤘다.

앞으로 반기문재단은 ADB(Asian Development Bank)와 함께 코로나 대응 글로벌 플랫폼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의료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 장기 제도적 접근 및 단기 신속대응의 두 가지 플랫폼을 7월 말까지 구축 예정
- 장 단기 플랫폼을 활용하여, ADB의 개도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제의 의료시스템을 설계, 구축을 추진
 - 아시아 지역 중 의료시스템이 낙후된 국가를 우선 고려하되, ADB와의 전략적 협의를 통하여 선정
 - 반기문재단은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까지만 수행

기대효과

- 향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공중의료시스템구축을 위한 컨설팅 재단으로의 역할 확대
- 공익재단으로서 민간외교 공공외교 역할로 국익증진에 기여

COVID-19 대응 방역 물품 기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1,100,800장, 방역복 130,000벌을 비롯한 기타 방역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방역물품은 국내 공공기관, 대학병원 및 중국 현지 기관에 1차 전달되어 COVID-19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의료진 및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국내 마스크 1,100,800장

지방자치단체	39,600장
대학병원	50,400장
국가기관	8,800장
적십자사	1,000,000장
기타	2,000장

국내 방역복 20,000벌

지방자치단체	10,000벌
대학병원	10,000벌



2020년 초, 중국의 마윈(Ma Yun) 알리바바 전 회장은 반기문 이사장에게 마스크 100만 장에 대한 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반기문 이사장은 마스크 배포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이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하였고, 3월 초, 의료진, 격리시설 격리자, 취약계층 등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중국현지기관 방역 물품 전달 내역



방호복	110,000벌
방호안경	30,000개
방호장갑	250,000켤레
알코올	120,000병
공기정화기	2,127명
소독제	30,000병



협력 및 참여 사업

반기문 이사장은 UN 총회, TIME 100 Talks 인터뷰, 문화미래리포트 포럼, 세계지식포럼 등에서 기조연설과 기고문을 통해 COVID-19 사태에서의 회복을 위한 전 세계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의 회복과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COVID-19 극복을 바탕으로 보다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방콕 PMAC(Prince Mahidol Award Conference) 연설 (1/31)

세계보건기구(WHO)가 COVID-19 팬데믹을 국제 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류 모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탄력적인 건강 시스템과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이 중요함.



TV 조선 국제 포럼 기조연설: “COVID-19와 양질의 교육” (3/26)

COVID-19으로 인하여 교육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과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함.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보다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등하고 공정하며 좋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

영국 RT News Network 프로그램 “Going Underground” 인터뷰 (4/4)

COVID-19 대응 관련 한국의 사례를 소개함.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 아닌 정보 공유와 협력이 중요함. 특히, COVID-19의 원인이 기후 변화에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약화되어서는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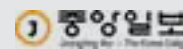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지구의 날 50주년 기념 중앙일보 좌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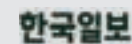
“코로나는 초연결사회가 가져온 생태계 교란의 결과” (4/22)



COVID-19가 국내외 환경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시급함. 따라서 기후 변화를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함.

한국일보 인터뷰:

“포스트-코로나, 기후 변화에 대한 예방책 필요” (4/29)



지난해에 비해 올해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7% 정도 감소함. 이러한 개선에는 COVID-19로 인한 중국의 상황 변화도 영향을 미쳤으나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으로 시행된 강력한 단기 계절 관리제가 주효함. 한국의 노력과 함께 중국과 공동으로 ‘동북아 호흡공동체’로 협조해 나가야 함.

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2020 정기총회 강연:

“COVID-19와 UN글로벌컴팩트” (5/28)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다자적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함. 또한 기업들이 언택트의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인식해야 함.



보아오포럼 제2회 국제보건포럼 (Global Health Forum: GHF) 화상회의 기조연설 (6/2)



COVID-19 대응에 있어서 다자적 협력, 특히 정보와 경험의 공유가 매우 중요함. 국제 사회는 통합군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제보건포럼(GH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 서밋 2020 축하 연설 (6/3)

COVID-19 극복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의 희생은 안 됨.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팬데믹 사태가 인간이 초래한 기후 위기에 대한 자연의 응답이라고 하였음. 또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환경파괴와 전염병 간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힘.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 차원의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함. 특히, 선진국·개도국 간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TIME 100 TALKS FINDING H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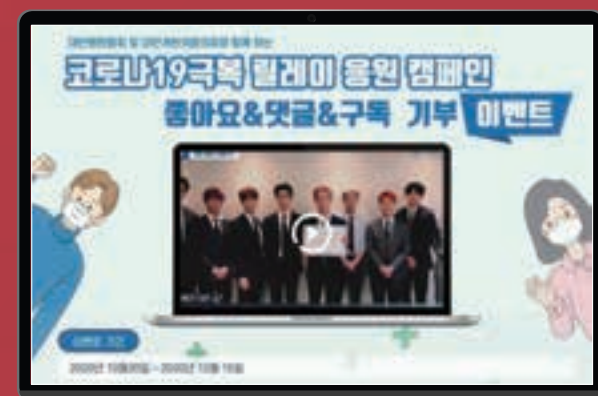
Times 100 Talks 인터뷰: "Finding Hope" (6/17)

COVID-19 팬데믹과 경제 위기 이후 '보다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협력이 중요함. 지난 2016년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사실상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을 고립시켜왔으며 국제협력을 약화시킴.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는 협력과 파트너십을 대체할 수 없음.

스포츠 닥터스 COVID-19 극복 릴레이 응원캠페인 동참 (6/19)



세계 최대 국제 보건의로 단체인 스포츠 닥터스가 진행하는 COVID-19 극복 릴레이 응원캠페인은 COVID-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며 이에 적극 참여함.



IE University online 대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해하기 (Making sense of the world we live in)" (7/1)



COVID-19 위기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기후변화대응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팬데믹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이슈이며 국제적 연대에 기반을 둔 강력한 다자주의적 대응이 필요함. 특히, COVID-19 회복을 위하여 기후 대응 노력, 즉 경제와 사회를 녹색화하는 것이 COVID-19 회복의 중심이 되어야 함.



미국 CNBC 인터뷰 (8/4)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COVID-19 대처는 정부의 정책(3T)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P)가 합쳐진 3T+P 원칙 덕분임. 특히,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함. 또한, 세계적인 차원의 리더십이 부재한 현 상황을 비판하면서 UN 창립 75주년을 맞아 미국이 다자주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함.

문화일보 문화미래리포트 포럼 축사 (9/3)



COVID-19 팬데믹은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또 하나의 경고임. 생활과 생산을 회복하여 '새로운 정상(new normal)'을 지향할 것을 촉구함. 특히, 비대면 접촉이 크게 확대되는 이 '새로운 정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산업의 전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의 잠재력을 촉진해야 함. 이를 위하여 다자주의의 회복과 선진국들의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을 호소함.




KINSA 아카데미 특별 강연:

“COVID-19의 교훈과 우리의 과제” (9/14)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국가권력의 팽창, 비대면 접촉의 증대 등 새로운 현상이 대두될 것임. 나아가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행동이 더욱 긴급하고 불가피한 과제가 됨. 이를 위하여 그린뉴딜은 그 개념과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함. 명확한 온실가스감축 목표 제시, 화석기반 경제구조 탈피 등이 긴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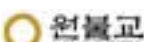
2020 세계지식포럼 기초연설:

“팬데믹스(Pandemics) Perspective: 새로운 글로벌 통섭을 위하여” (9/16) 

COVID-19 사태로부터의 회복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전 세계는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함. 국제 협력과 혁신, 파트너십은 COVID-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원불교 대산종사 종교연합운동 제창 50주년 기념행사 기초연설:

“세계평화와 종교의 역할- COVID-19와 환경문제” (9/26)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국가, 민족, 또는 사회 간의 대화와 협력만이 평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구축하는 유일한 길임.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기후 위기 대응이 긴요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그린뉴딜과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푸른 하늘의 날은 이를 위한 것임.


UN 총회(UNGA) 연설:

“Game-changing Transformations” (9/29) 

팬데믹(pandemic)은 혁신과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관 학문들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또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팬데믹 이후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해 나가기를 기대함.




Pardee Center와의 온라인 대담:

“코로나 이후의 세상: UN의 미래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uture of the UN) (9/29) 

COVID-19 극복과 함께 우리는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함. 아울러, 다양한 종류의 위협과 공격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체계화해야 함. UN을 통한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함.



UN 창설 75주년 기념 축사:

“UN75, COVID-19, 그리고 다자주의 재활성화의 중요성”(UN75, COVID-19, and the Importance of Reinvigorating Multilateralism) (10/19) 

COVID-19과 기후 위기와 같은 전례 없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에 바탕을 둔 강력한 다자간 대응이 필요함. 팬데믹과 기후 변화는 모두 협력, 행동, 혁신을 요구하는 진정한 범지구적 문제이며 특히 청소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역량강화(Empowerment)는 글로벌 파트너십 노력의 중요한 요소임.

부산UN Week 2020 세계평화포럼 기초연설 (10/29)

COVID-19 등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한 근본원인은 환경의 파괴와 기후 변화이기 때문에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성실한 이행,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적 에너지 믹스가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인간들의 삶의 양식에 있어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


제1회 BFA 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um 비대면 기초연설 (11/10)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COVID-19과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는 과학, 기술, 혁신이 긴요함. 또한, 혁신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해결책이 됨.

집콕? 책콕! (4/2-4/30, 9/29~10/19)

COVID-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4월과 10월 매주 목요일마다 책 3권을 추천함.

LAWASIA's 2020 Conference 개최식, 한동대학교 김영길그레이스쿨, 제2회 이종욱 포럼, 국제반부패컨퍼런스(IACC),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국제 콘퍼런스 등에서 모든 주체 및 국제사회의 연대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COVID-19 사태에서의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영상메시지 활동 소개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02

SDGs와 기후 변화

‘REDESIGN OUR FUTURE’ 연구 보고서 발간

협력 및 참여 사업

영상 메시지



‘Redesign our future’ 연구 보고서 발간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 SDGs의 지속적인 추진과 구체적인 이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활동
- 사업 목적
 - SDGs 추진 5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10년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전달
 - SDGs를 이행하는 각 국가와 주체들에게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SDGs 발전방향을 제시

사업 내용

- 활동 내용
 - SDGs 이행 동향 파악 및 정량적 분석
 - SDGs 추진을 위한 향후 파트너십 구축
 - 주요 메시지 및 권고사항 수립
- 5차례 내부 회의 및 1차례 중간보고회
- 2020년 11월 3일, 최종보고회

사업 결과

- 『Redesign our future』 발간
- 전 세계의 요로에 배포
 -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등 국내외 요인 846인
 - UN 및 국제기구 65개
 - 각 시 도지사 및 교육감 37인

SDGs 보고서(Redesign our future) 배포

UN 관련 기관	33부
국내 관공서	389부
국제기구	50부
주한 대사관	113부
언론	112부
기타	323부



Introduction

많은 국가들은 2015년 발표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하 SDGs)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보고서는 지난 5년 간 SDGs 이행의 객관적 평가와 향후 10년 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토대로 SDGs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은 6개의 핵심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SDGs 이행을 위하여 정부, 민간,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관련 기관 및 협의체와 실행하는 협력행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SDGs의 현재 진행 상황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국가별 사례를 사용한 정량적 방법론을 통해 6개의 핵심 메시지를 도출하였다.

Key messages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간 상호관계 재정립

COVID-19 위기 진단 및 SDGs에 미치는 함의

SDGs 이해당사자 간의 균형 재조정

이해당사자 역량강화 및 참여유도

SDGs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경험의 공유

나아갈 방향

1. SDGs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쇄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옵션 및 조건을 확인하는 글로벌 연구 이니셔티브가 관련 연구 기관 및 학계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2. SDGs 이행의 모범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은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이익단체가 속한 지역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3. SDGs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2030년까지 SDGs 이행 전략을 수립키 위해 Guterres UN 사무총장에게 2025년 특별 UN SDGs 정상회의 소집을 제안한다.
4. 공공, 민간,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긍정적인 파트너십은 SDGs의 효과적인 이행과 자원 배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지역·국가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 민간부문에서는 SDGs 관련 분야를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고, 단기 경제 목표가 미치는 사회적 생태적 영향을 측정하는 ESG 지수를 채택해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SDGs의 장기 투자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6. 국가 차원에서 SDGs 목표 및 세부목표들 간의 시너지와 상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모니터링 수단과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UN DESA와 총회는 현재의 VNRs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SDGs의 3대 기둥, 참여자, 시간 선호도 재조정

구분	3대 요소	행위자	시간 선호도
현재	경제개발, 환경, 사회	민간, 공공, 시민사회, 청년과 여성	단기, 장기
2030 / 2050	경제개발, 환경, 사회	민간, 공공, 시민사회, 청년과 여성	단기, 장기

SDGs의 개선 방향



1. 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와의 양립을 무시한 채 단기적 경제 성장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는 현재의 정책 추진 방향은 재정립되어야 한다.
2.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 특히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SDGs 참여자들 간의 균형은 더 이상 공공 부문을 우위에 두지 않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3. 단기적인 경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원의 잘못된 배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협력 및 참여 사업

반기문 이사장은 제1회 ‘푸른 하늘을 위한 공기의 날’ 라운드테이블, 제53회 아시아 개발은행 이사회 총회, 제주포럼,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등에서 기조연설과 기고문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기후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기후 변화 해결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사회 구축을 위해서 SDGs를 기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긴밀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두바이 GEMS 국제학교 모의UN(GWAMUN) 사무국 학생들과의 만남 (1/8)



학생들은 세계시민의식과 리더십을 배양해야 함.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생들과 교육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두바이 GEMS 국제학교 모의UN(GWAMUN) 기조연설 (1/9)



학생들이 모의 UN회의를 통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2030 의제와 ‘단 한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기 바램. 특히, 성평등과 양질의 교육이 중요하며 학생들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대함.





기후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SDGs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기후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주의적 협력이 중요함.



제504회 마산 합포문학동인회 문화강좌 강연: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기후 변화” (1/16)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함.



Paris Sciences Po Youth and Leaders Summit 기조연설:
“기후의 악영향을 받는 사회에서의 번성 (Prospering in a Climate Impacted Society)” (1/19~1/20) **SciencesPo**

기후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SDGs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기후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주의적 협력이 중요함.

**케임브리지 유니언
(The Cambridge Union) 특별강연:**
“SDGs와 여성” (1/21)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전쟁과 갈등, 기후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주의가 중요함. 또한 SDGs 달성을 위하여 여성 역량강화가 중요하며, 모두가 연대하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함.

워싱턴 Brookings Institution:
Alan and Jane Batkin International Leaders Forum(기후 위기와 기후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과 적응) (1/24) **BROOKINGS**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국경을 초월한 다자주의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 계획, 그리고 재정의 혁신이 필요함.

UN ESCAP 방문 및 강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 이해하기” (1/31)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기후 이변과 질식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파괴적인 산불을 마주하고 있음. 이를 막기 위해서 국제 사회의 노력을 강화해야 함.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국경을 초월한 다자주의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 계획, 그리고 재정의 혁신이 필요함.



UN ESCAP:
“Decade of Action” (2/1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 기간이 10년 남았음. 지난 5년 간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10년 기간 동안의 이행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중요한 시점임. UN을 중심으로 이행 가속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SDG Academy
Jeffery Sachs와의 대담 (2/20)

한국의 50-60년대 어린이들이 유네스코와 UN으로부터 교육 지원을 받은 것을 상기함.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던 일이 개인적인 영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세계시민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나아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세계시민정신으로 무장된 청소년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함.

한국행정연구원 정기간행물
“행정포커스” 특별대담 (2/21)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기후약당’ 이라고 불리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하여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 해결을 촉구함.

Coursera 강의:
“21세기 지속 가능한 발전” (2/26)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2030 의제의 달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특히 중요함.

GCA(Global Center for Adaptation)
Board Meeting (2/27)

기후 변화 ‘적응’에 관한 공동의 인식을 촉구함.

프랑스 개발청(Agence Francaise de Developpement, AFD) 인터뷰: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을 동원하고 활용해야 한다” (2/29)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하지만 현재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파트너십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과 ‘경감’을 강화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하여 세계적응센터(Global Center on Adaptation, GCA)가 창설되었고,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 도덕적 책임과 협력의 힘을 보여주기 위하여 올해 10월 2020 기후 적응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만남:
“그린뉴딜 추진하려면 2050년 전 탈석탄 목표 세워야” (5/21)

‘한국판 뉴딜’ 중 하나인 그린 뉴딜의 범위를 포괄적이고 야심차게 해석해 적극적으로 투자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함. 이에 2050년 이전 탈석탄 선언이 포함되어야 함.

UNAI/UN75 온라인 회담:
“기후 변화 대응에서의 대학의 역할” (6/5)

기후 변화 대응에서 대학의 역할은 5가지로 요약됨. 탄소 중립 달성, 지속 가능성, 글로벌 시민권 커리큘럼 확장, 중요 연구 확대와 다양한 자원을 통해 혁신적 해결책 제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친화적 환경 구축의 모범 등임. 이를 위한 연대와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대학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
(The 7th Green Round Table) 축사 (6/24)

COVID-19는 우리가 타인과 교류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음. COVID-19 극복과정은 ‘친환경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전의 탄소배출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유례없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함. 또한, 현 세대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정책과 규범의 핵심으로 삼아 2020년을 기후 변화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함.



국회 정책간담회: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 악당국가에서
기후선도 국가로서의 전환” (6/29)



한국이 미세먼지, 대기질과 관련해 OECD 국가 36개 회원국 가운데 35위, 36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후악당’ 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수치임.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한국이 기후 선도국가로 가야 하며 그 길에는 석탄 발전 비중의 감소가 매우 중요함.

교도통신 인터뷰 (7/6)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선언은 무책임함. 지금은 WHO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긴요함. 또한 대규모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가 자동으로 연합하여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함. WHO나 UN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UN 기구 및 각 지역 개발은행이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함.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 축사 (7/7)

국제사회에서는 지방정부,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상향식 기후 행동’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민 활동을 조직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의 선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 대한민국 역시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을 수립하는 등 2021년 신기후 체제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감축 목표 설정, 효과적인 감축 수단 마련, 산업 부문별 이해관계 조율 등 논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서울시 교육청 제2회 생태전환교육포럼 기조연설:
“기후 위기시대, 생태전환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 (7/22)**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에, 학생들에게 ‘환경 학습권’을 보장해야 함. 국가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환경 대응임. 미래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기후 변화 및 미세먼지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

문화일보 인터뷰:

기후 변화 인류 멸종과 직결...
이젠 반드시 우선순위에 뒤야 (7/29)



중국과 미국을 합치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42%를 차지하는 만큼 미국과 중국의 의지가 중요함. 기후 변화는 인류의 멸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가 필요함. 대한민국도 더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환경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환경 교육이 매우 중요함.

기후 위기 극복 관련

광명시장에 대한 서한 (8/3)

기후 변화는 COVID-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따라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한 ‘기후 위기 비상선언’과 다수의 기초지방정부가 뜻을 모은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발족은 각별한 의미가 있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주한뉴질랜드대사관 기후토론회 축사 (8/4)

기후 행동은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하나이지만 나머지 16개의 목표 달성을 촉진시킬 것임. 따라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이 중요함. 앞으로 경제 정책은 ‘환경친화적(geen)’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태평양의 군소도서 개발국(SIDS)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간의 지식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는 기후 행동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





2050 Net z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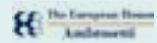


European Forum Alpbach 2020 연설:
 “부정부패와 지속 가능한 개발(Corrup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9/1)



효과적인 반부패 조치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필수적임. 아울러, 기본적 필요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는 심화된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자국의 SDGs 행동 계획을 반부패 계획에 맞추어 조정할 것을 촉구함.

Ambrosetti Forum 개회사:
 “세상을 보는 관점, COVID-19과 기후 변화 (World Outlook: COVID-19 & Climate Change)” (9/4)



점점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는 우리 세계에서, 글로벌 도전은 국가들 간의 협력 파트너십으로 대처해 나가야 함. COVID-19 팬데믹(pandemic)과 기후 변화는 그러한 글로벌 도전임. 국가 간의 상호연대와 강화된 국제협력, 파트너십,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는 보다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임.

제1회 ‘푸른 하늘을 위한 공기의 날’ 기념 국제회의 ‘푸른 하늘과 2050 순배출 제로 캠페인 라운드 테이블’ 개회사 (9/7)

국가 간 대기오염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하여 지방 자치체들 간의 모범사례 공유 및 파트너십의 발전이 중요함. 아울러, COVID-19의 영향은 한시적이지만 기후 위기는 그 강도와 영향에 있어서 상시적이므로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인류를 위협할 것임. 국가 경제가 녹색 경제로 대전환되어야 함.

UN75 관련 CGTN 싱크탱크 영상 인터뷰: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인간 개발 – 빈곤 감소 (9/13)



UN 헌장이 명시한 ‘평화 및 국제 안보 유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모두를 위한 인권’은 UN의 3대 비전임. 세계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집단 이성을 발휘하면 UN이 전 세계적 문제(Global challenges)를 해결할 수 있음.

국제자선단체포럼 Global Philanthropy Forum(GPF) 2020 인터뷰 (9/14)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에 있어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국가들의 의무임. 자선활동은 비즈니스 영역과 개발 영역을 연결해주고, 혁신과 기업이 정신을 지속 가능성의 수행에 맞추기 때문에 중요함. 현재의 위기적 상황에서 자선기금은 긴급 위기 행동에 최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함.

아프리카 세계적응센터와 기후 변화 (GCA Africa on Climate Change) 인터뷰 (9/16)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후변화 현상의 최대 피해자임. 따라서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후 현상을 해결할 역량을 키우고 지역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기후 변화 ‘적응’은 발생하는 위험들을 낮추는 것이며 따라서 대규모의 개입이 필요함.



**제53회 아시아 개발은행(ADB)
이사회 총회(the 53rd Annual Meeting
of the ADB Board of Governors) (9/18)** 

현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COVID-19, 기후 변화, 교육임. 특히, COVID-19와 기후 변화 문제는 국제협력을 필요로 함. 이러한 점에서 UN은 국가 간의 연대, 파트너십, 그리고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또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함. 강화된 국제협력, 파트너십,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는 보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요소들임.

**주한알제리대사관 주최 포럼 참석: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하나
(We Are One for a Better Future)” (9/21)**

국제사회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더 건강한 사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국제협력, 파트너십, 글로벌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인 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함.

조선일보 인터뷰 (10/19) 

현재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한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 우리 사회가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핵심적인 국가 어젠다로 구축해야 함. 탈원전 정책은 기후환경 대응의 하나로 검토되어야 하며 탄소 중립 선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기후변화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함.

**세종연구소 특별 강연: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10/27)** 

기후 변화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임. COVID-19 팬데믹은 인류에게 지속가능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행동에 촉각 나서는 지구의 마지막 경고일 것임. 대한민국이 ‘기후약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현재의 탄소 중심 에너지 믹스를 친환경적 에너지 믹스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함. 결론적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성취, 기후 변화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지금까지의 인류의 생활 양식 자체를 바꿈으로써만 가능함.





국제기술혁신대회 개막식 참석 (11/2)

글로벌 청년 혁신가들의 스타트업은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기술과 혁신 체계 구축에 긴요함. 이번 대회에서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세종시청 및 세종시교육청 방문 (11/2)

미세먼지 등 정부의 기후 환경대책 이행에 있어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 이 점에서 세종시가 자연친화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기대됨.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모든 학교, 학년별 기후 환경교육 의무화와 전담교사제 시행 등 구체적인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제주포럼 기조연설:

“팬데믹의 한 가운데에서 다자협력의 새로운 구상(How to reinvent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midst of pandemic)” (11/6)



COVID-19 팬데믹은 보다 나은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음. COVID-19 대응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행동을 제고하는 것은 보다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로 이끌 수 있음. 상호연결성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약대(Springboard)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임.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그리고 필수적인 활동(efforts)에 있어 우리 모두가 중요한 이해관계자임.

제주포럼 축사:

“지구시스템과 기후 비상사태 거버넌스 (Earth system and climate emergency governance)” (11/6)



심각해져가는 기후 변화 상황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Agreement)에 의거한 공동 행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기후 탄력적(climate-resilient)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러한 점에서 제주시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제로(carbon neutrality)를 선언하고, 제28차 당사국총회(COP 28)를 개최하고자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2020 ESG 글로벌 서밋 축사:

“COVID-19, 기후 변화, 그리고 UN SDGs” (11/9)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그리고 필수적인 활동(efforts)에 있어 우리 모두가 중요한 이해관계자임.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Agreement)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 강화되어야 함. 또한, 모두가 공유하는 미래를 위한 SDGs의 비전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is left behind)이기 때문에 COVID-19 회복을 UN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함.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ALC) 연설:

“COVID-19 이후 글로벌 리더십의 재건(Rebuilding Global Leadership after COVID-19)” (11/11)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증대된 이 시대에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길은 글로벌 리더십의 재구축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유용성 확대임. 아울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는 미국 리더십의 복원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의 위한 명백한 승리임.



**세계식량계획(WFP)
'Zero Waste Zero Hunger'
캠페인 (11/19)**



동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선택'이자 습관, 생각, 문화를 바꾸는 '지속 가능한 캠페인'임. 대한민국이 한 세대에 성취한 Zero Hunger를 전 세계가 성취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국제적인 관심과 공동의 노력이 긴요함.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0:
'뉴노멀 시대와 UN글로벌컴팩트'
(11/24)**



LEAD기업들은 각 분야에서 타 기업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 사례이며 앞으로 한국의 지속가능경영 의제를 이끌어 가는 데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함. 또한, 격변하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를 통한 공동의 협력이 필요함. 이 점에서 다음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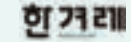
**UN아태지역(UNDESA) 심포지엄 비대면 연설: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한 공공
거버넌스 활용 - 변화, 혁신, 포괄성(Leveraging
Public Governance to Accelerate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Transformation,
Innovation & Inclusion)" (11/24)**



혁신이 우리의 사고방식(mindset)이 되어야 함. 또한 정책들을 서로 연결시키며 그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므로 정책담당 공무원들이 혁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추구해야 할 것임.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 연설:
"지구적 위기, 지구적 협력 -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12/2)**



COVID-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지구촌의 일원으로 세계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친화적 삶의 공간으로 바꿔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글로벌 연대를 통한 글로벌 문제 해결의 자제가 필요함.

'조 바이든 시대, 기후 변화 정책' 좌담 (12/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G7'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생태 및 기후 관련 교육의 중요성과 비전을 담은 중장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함.



포스코 특별 강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업시민 포스코가 나아갈 길” (12/8)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스코의 기업시민 정신이야말로 모든 기업이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임. 파리기후변화협약과 UN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포스코가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으며 ‘기업시민’이라는 새로운 경영 비전 설정을 평가함.

**파리기후변화협약 5주년 기념 행사
참석(프랑코포니) 오찬 (12/11)**

COVID-19 상황에서 인류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함. 2021년에는 1월 GCA 정상회의, 5월 P4G 정상회의 및 11월 제26차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 3개의 중요한 기후 관련 행사가 예정되어 있음.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체제 및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에의 복귀를 적극 환영하며 국제사회가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대한 기후대응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함.

아시아경제 인터뷰 (12/15)



2015년 총회에서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국제사회의 결단임. 2021년 개최될 기후관련 국제행사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멘텀이 될 것임. 특히 한국이 개최하는 P4G 정상회의는 2021년 11월 영국 개최 예정인 COP26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임.

No Planet B 손글씨 챌린지 (6/5-6/30)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반기문재단에서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손글씨 챌린지를 진행하였음. ‘No Planet B’라는 문구를 적어 사진을 찍은 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한 명의 참가자당 5000원을 재단에서 기부하는 행사로, 총 300만 원을 기부하였음.



Club De Madrid, 환경의 날 기념 행사, 2020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Climate Investment Summit, Post VNR-Forum, 2020 GO ESG ASEAN 기업 지속가능성 비대면 서밋, 2020 보아오포럼 아시아 빈곤 감소 보고서 기자회견 등에서 다자주의의 재확성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

영상메시지 활동 소개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인사말/축사



재단 소개



COVID-19



SDGs와 기후 변화



평화와 안보



여성과 청소년



부록



03

평화와 안보

반기문 평화안보포럼

협력 및 참여 사업

영상 메시지



반기문 평화안보포럼

포럼 운영 목적

- 반기문재단의 목적 사업 중 하나인 평화·안보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
 - 한반도, 동북아 지역은 물론, 국제 외교안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
- 국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단 업무 역량 강화

포럼 구성

- 통일, 외교·안보 및 국방 분야 고위인사와 민간 전문가 등 20명 내외
 - 전직 외교부, 통일부 및 국방부 고위관료와 민간 연구소 (think tank) 인사

포럼 위원

반기문 이사장	류제승 위원
유명한 좌장	박형중 위원
남성욱 간사	신범철 위원
김숙 위원	신의목 위원
최성주 위원	이건완 위원
김기웅 위원	이수석 위원
김상기 위원	전성훈 위원
김완규 위원	정상기 위원
김일수 위원	정안호 위원
김종훈 위원	정연봉 위원
김천식 위원	한기범 위원

활동 계획 및 실적

- 2020년 1월 28일 포럼 출범 및 1차 세미나 개최
 - 1차 세미나 주제: ‘2020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전망’
 - 주제 발표에 이어, 참석 위원들의 토론으로 진행 (세미나 내용은 언론 비공개이고, 참석 위원은 정치적 중립 유지)
- 2020년에는 격월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COVID-19 사태로 인해 후속 일정 연기
 - 2020년 말, 예정되었던 세미나도 COVID-19 방역지침 강화로 인해 개최 직전에 취소
- 2021년에는 분기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 유엔 및 다자, 신기술 분야 전문가 영입
 - 연말에는 세미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 건의서 작성

주제발표

- 1차 세미나(2020.1.28)
 - 남성욱 위원: 2020년 韓半島 및 東北亞 정세 전망과 대응방향
- 2차 세미나(2020.11.25 예정되었으나 COVID-19로 취소)
 - 김완규 위원: 바이든 新정부의 對中 관계
 - 김천식 위원: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평가
 - 류제승 위원: 북한 핵 위협 억제와 폐기, 국제 핵비확산 체제(NPT) 유지의 해법은 한 미 ‘핵동맹’이다
 - 신범철 위원: 한미동맹: 현주소, 변수, 발전 방향
 - 정안호 위원: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의견



협력 및 참여 사업

반기문 이사장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비대면 공개회의,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등에서 기조연설과 기고문을 통해 기후 변화와 마찬가지로 핵 문제는 국제 안보 분야의 긴급사안이라는 점을 짚으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새로운 연대감이 긴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평화와 향후 발생가능한 전 세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차원의 다자간 협력, 혁신, 파트너십의 확대와 국제적 신뢰 및 협력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Khaleej Times와의 인터뷰 (1/9)



워싱턴 Doomsday Clock 행사 참여 (1/23)

핵무기와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성이 크게 높아짐. 탄소 없는 경제(Carbon Net Zero Economy)로의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다자주의 원칙이 중요함.

조지타운 대학교 학생들과의

Doomsday Clock 질의 응답 (1/23)





‘기후 변화’와 ‘핵 문제’는 국제 안보 분야의 긴급한 사안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2020 평창평화포럼(PPF 2020) 기조연설: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세계 평화” (2/9)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가 기한 내 달성되어야 함.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 강화와 전 세계의 평화 구축 및 유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MSC):**

“기후와 안보 패널 토의(Climates &
Security panel discussion)” (2/13)



‘기후 변화’와 ‘핵 문제’는 국제 안보 분야의 긴급한 사안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TUM Speakers Series 연설:

“2020 다자주의 보호의 필요” (2/14)



기후 위기와 핵 위협을 이겨내기 위하여 글로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디지털 시대에 자라난 청년들에게 해결책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

Global Soft Power Summit 2020 기조연설:

“국경을 초월하고 화합의 교량을
건설하는 소프트 파워” (2/25)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세계 시민의식을 통하여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평화를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소프트 파워는 국경을 초월하고 화해를 도모하며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하여 세계를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음.

The Elders, Skoll Foundation 2020

Global Treasure Award 수상 (3/30)



세계의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어떠한 개인이나 국가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국제사회의 다자주의적 협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임.

쿠웨이트TV 인터뷰 (5/8)

COVID-19은 세계평화 달성에 위협이 되고 있음. UN은 여전히 평화 구축, 분쟁 해결, 지속 가능한 개발 달성, 기후 활동 촉진에 대한 인류의 최고의 희망으로 남아 있음. 아울러, 안전보장이사회가 개혁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UNESCO 창설 70주년 기자회견 (5/25)



초등학교 시절 당시 UNESCO로부터 교과서 등의 지원을 받았으며 교육은 한국 발전의 동력이 되었음. 또한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경제 발전을 이룩한 모범 국가로서 이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것이 중요함.





6.25 전쟁 70주년 설치미술 특별전 ‘광화문 아리랑’ 축사 (6/15)

6.25 참전 용사의 호국정신이 있어 지난 70년 간 이 땅에 찬란한 기적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었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단결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 계층과 세대를 초월한 역사의 공유와 공동의 기억이 중요함.

2020 UN글로벌콤팩트(UNGC) Leaders Summit 개최사 (6/16)



COVID-19 위기 이전에 인류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아울러 새로운 차원의 다자간 협력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의사 결정자, 기업의 지도자, 그리고 세계 시민들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생각과 행동을 전환해야 함.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단결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 계층과 세대를 초월한 역사의 공유와 공동의 기억이 중요함.



옥스퍼드 유니언(The Oxford Union) 팟캐스트 인터뷰 (6/17)



UN 사무총장 재직 시 다르푸르(Darfur) 폭력 사태의 평화 협정의 달성에 기여함. 수단은 2009년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찾음. 그러나 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단되었고, 상황은 아직도 유동적임. UN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시리아의 난민들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2020년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 (6/29)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발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으며 양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인적 교류도 긴밀해졌음. 한-중 양국이 앞으로 자유무역, 기후 변화 등 국제·지역 문제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모색해야 함. 아울러 한-미 관계는 특수하며 한-미 동맹은 이미 한국의 외교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중국이 한-미 동맹 관계를 이해해주길 당부함.



오산 죽미령 전몰 장병 추도식 연설 (7/5)

UN군과 미군의 지원 덕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존중 등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으며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 아니라 잊힌 승리임. 아울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혈맹과 상호 존중으로 맺어진 이 특별한 관계와 강한 유대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더욱 공고히 되어야 함.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 (Chatham House) 웨비나:

“포괄적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발전 – 지역 및 국제 간의 격차 좁히기” (7/7)



완전한 협력, 연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 없이 어떠한 국가도 세계적인 도전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음. 특히, 기후 변화는 연대와 평등, 포괄성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적 행동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임. COVID-19는 우리의 공통적인 인간적 유대감과 취약점을 일깨워 줌. 전 세계는 팬데믹과 여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대감과 집단행동으로 대응해야 함.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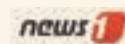
“위기의 남북관계 한미동맹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7/8)



COVID-19 이후 언택트 생활양식의 일부가 뉴노멀(New normal)이 되는 시대에 대비해야 함. 미·중 간의 헤게모니 경쟁이 격화되며 신냉전 시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우리의 대응은 매우 중대한 외교·안보적 과제가 될 것임. 대북정책 및 비핵화 전략 재고, 외교·안보의 기본 원칙, 새로운 남북관계 접근법 모색 등 3가지 과제가 시급히 검토되어야 함.

뉴스1 미래포럼 특별 강연:

“글로벌 리더십이 사라진 세계, 한국의 선택은?” (7/16)



전 세계 국가의 협력, 즉 ‘다자주의’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음.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짚으며 ‘2050 넷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장기적인 기후환경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음.

카이스트 2020 NEREC

국제핵비확산학회 축하 (8/4)



핵 무기와 관련된 많은 국제적 갈등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발효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핵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인 탄소제로(carbon free) 에너지의 원천임.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을 통해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함.

UN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화상회의의 연설:

“팬데믹과 평화 유지의 과제” (8/12)



전 세계적으로 9일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 2532호의 만장일치 채택을 환영함. 의료 시스템에 접근이 힘들고 소외된 집단에서 COVID-19 감염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6번째 지속가능개발목표인 정의·평화·효과적인 제도가 공공 의료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 COVID-19는 평화 구축 과정에서 팬데믹, 불평등,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평화 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의 역할이 중요함.

미국 델라웨어 대학 주최 Biden Institute와의

온라인 대화(Biden Institute –

Virtual Conversation Q&A) (9/16)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와 팬데믹같은 다른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 혁신, 파트너십을 시급히 확대해야 함. 아울러,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신뢰와 협력을 회복해야 함. UN과 북한, 기후 변화에 대한 개인의 행동, UN 여성 이니셔티브(UN Women Initiative) 등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함.

Joe Biden 대통령 당선자 당선 축하 서한 (11/9)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일했던 추억이 새로움. 바이든 당선인의 리더십이 미국의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는 시대적 과업을 커다란 성공으로 이끌어 가리라 확신함. 아울러, 혈맹인 한미동맹은 바이든 당선인의 리더십 아래 앞으로 더욱 공고한 동맹이 될 것임.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 공동의 신념과 가치에 대해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함.



Hon. Joe Biden
President-elect
United States of America

November 9, 2020

Dear President-elect Biden,

Allow me to express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as the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r victory speech delivered in Wilmington, Delaware on Saturday night moved and filled billions of people's hearts around the world with hopeful anticipation of the brighter future. You vowed to unify the deeply divided nation. Upon hearing the good news, I took a moment of reflection on the times we had worked together for global peace and prosperity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know for certain that under your leadership, not only will the United States prosper but the whole world will be better off by promoting peace and successfully addressing challenges of our time.

This year, the entire world has been in dismay due to the viral outbreak. Your promise to spare no effort to put an end to the COVID-19 pandemic first on January 20, 2021 reassured people around the world that things would finally return to normal and they could once stand back on their feet. I also wholeheartedly welcome your promise to return the United States to the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as quickly as possible. I am confident that this would not only restore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leadership but also, with the close cooperation with the UN system, reinstate multilateralism that has been undermined over the past several years—both of which are crucial for humanity to wisely overcome the crisis and pass down a better future to the generations to com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firmly believe that you are a longstanding friend of our nation. As one of them, I would like to underline that the ROK-US alliance is far more than partnership or friendship. A military alliance forged in the crucible of war and hardened by blood spilled together has now advanced into a comprehensive alliance of shared values. I sincerely hope it matures and becomes consolidated even further under your leadership.

As you quoted your grandparents in the victory speech, I cannot agree more that now is the time not only to “keep the faith” but also to “spread the faith.” I am thrilled to join you in the journey of “spreading the faith” and look forward to discussing our common faith and values when time permits in the near future.

Once again, I s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and wish you good health and continued success in your future endeavors.

Yours sincerely,
With my deep admiration for your global leadership to make this world better for all!
 Ban Ki-moon
 8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서적 기증식 (9/18)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은 9월 18일, 『Conversation with BAN KI-MOON』 572권을 기증 받았음. 해당 서적은 (주)위지어스에서 기증했으며, 기증식은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음.

국방대학교 비대면 특별 강연 (9/22)

COVID-19와 기후 변화는 세계적인 도전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에 주체가 되어야 함.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 “70년이 된 한국 전쟁 (The Korean War at Seventy)” (9/24)

워싱턴 DC의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과 함께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한국 전쟁 당시의 유년 시절, 한국 전쟁에서의 UN의 중요성과 역할, ‘잊힌 전쟁’에서 배운 경험이 소중함을 피력. UN 사무총장으로서 겪었던 전쟁의 폐해 등에 대하여 설명함.

CGTN 인터뷰: Lanting Forum on International Order and Global Governance (9/29) CGTN

UN의 역할과 현재 활동에 대한 평가, UN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 UN에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함. 아울러, UN이 필요한 이유, 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에서 UN의 역량, UN이 특히 자랑스러웠던 순간, 그리고 UN이 부재한 세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함. 결론적으로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전 세계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과의 대화 (10/5)

반기문 이사장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조태용 의원 등의 주선으로 반기문재단 사무실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 아래진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눔.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북한과의 관계는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Wilton Park and UN Women 화상회의 참석 (10/7)

중재와 평화 구축의 과정에 여성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함. 아랍지역의 각국 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있어 진전을 보일 것을 촉구함.

세계식량계획(WFP)에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 서한 (10/12)



WFP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하며, 배고픈 이들을 위한 WFP의 노력과 지원에 감사함. COVID-19이 초래한 기후 공중보건 경제적 악영향으로 전 세계와 취약한 계층이 더욱 심각한 가난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WFP의 구성원들과 그의 활동들은 모두 인정받아야 함.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기조연설: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 (11/12)



UN 사무총장 10년 동안 바이든 당선자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인권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다시금 세계의 존경을 받는 미국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국제질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임. 또한, 한미동맹의 가치가 커지고, 우호 및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도 북핵문제 접근법을 바꾸어야 함. 또한, 바이든 정부에서는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종전 선언 및 한미 군사훈련 중단 정책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음.

제28회 국제 국방학술 세미나 기조연설: “남북관계, 한미동맹, 우리의 미래” (11/13)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사회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제질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다자주의 복귀와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기대함. 한미동맹의 무게와 가치가 커지고 우호와 협력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다만, 전작권 환수 문제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기존대로 미국 국방운용 체계의 관점을 앞세울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견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칠레 마젤란 해협상 (The Strait of Magellan Award) 수상 (11/24)

마젤란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또한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임.



세계변호사협회 연례 컨퍼런스에 ‘비대면으로 함께(Virtually Together)’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의 촉매제로 활용되어야 하며 세계적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영상메시지 활동 소개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04

여성과 청소년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YOUNG’ 교육자료 개발

반기문재단-한마음교육봉사단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미혼모가정 지원 사업

협력 및 참여 사업

영상 메시지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Young’ 교육자료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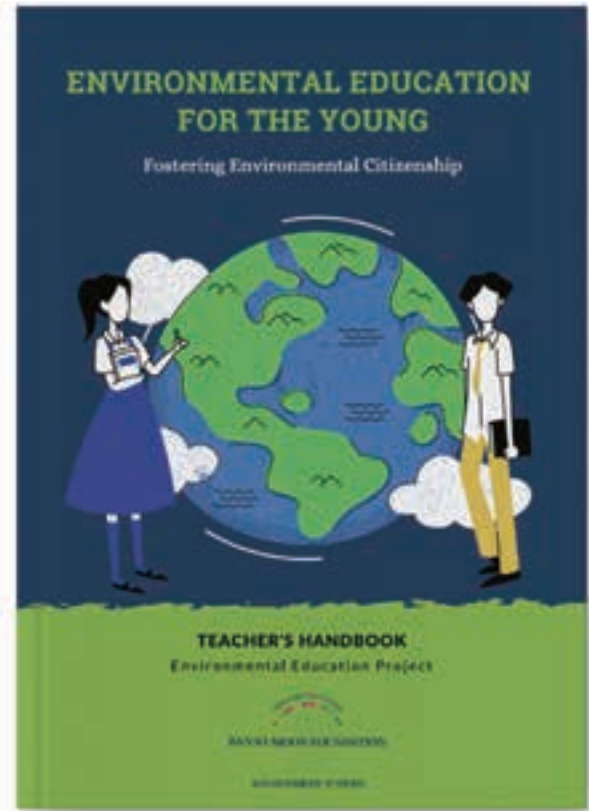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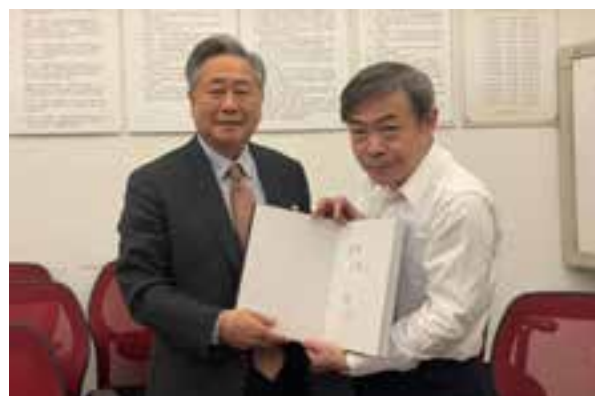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 현재 학교 현장 교육은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콘텐츠 부족, 비교과 과목에 대한 부족한 지식 및 경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기후환경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사업 목적

· 기후환경 관련 Global on-offline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ICT와 접목하여 학생들에게 기후환경의 개념, 짓기 및 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구체적인 실천 활동, 즉 체험 활동과 현장 참여교육을 중시할 수 있는 수업 모듈을 디자인
· 기후 위기에 대한 실효적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에 대한 조기 환경교육을 구체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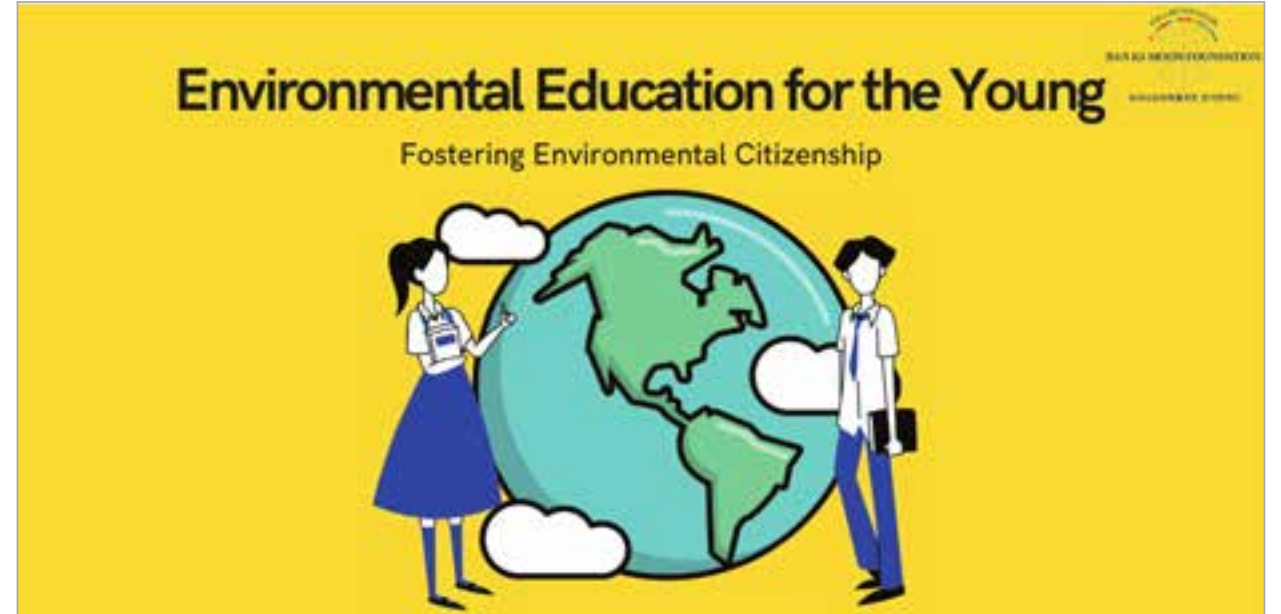


사업 계획

- 환경 및 기후변화 목표와 관련된 교육 자료 수집 분석
- ICT와 접목하였을 때 큰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의 SDG13(기후행동) 목표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 SDG13 외에도 가치관, 태도, 기술을 습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개발

사업 내용

- 교사 및 학생용 환경교육 참고교재 개발을 통하여 국공립 도서관, 환경 관련 시민단체, 교육기관과 희망하는 학교의 교사와 학생에게 교재를 지원
- 중국측 협력기관인 Broad Group(회장 : Zhang Yue)이 중국 내 학교·환경단체·연구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및 2021년 중 Broad Group과 합동회의 예정
- 향후 교재의 온라인화를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으로의 확산 모색



Introduction



18세기 산업혁명을 넘어 21세기에 들어선 전 세계는 현재 급격한 기후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수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2020년 9월부터 국공립학교에서 기후 변화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반기문재단은 기후 환경에 대한 미래세대의 가치관 정립과 실생활에서의 실천 방향 제시를 위하여 청소년 환경교육을 위한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Young’을 제작하였으며 청소년에 대한 조기 환경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의 미래의 기후 환경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유도함을 목표로 한다.



이 교재를 통하여 반기문재단은 교사와 학생의 환경 학습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국의 공적 교육에서 기후 행동 및 친환경적 소비 관련 교육자료 개발 촉구 및 정책 건의를 통해 SDG3, SDG4, SDG7, SDG13 등과 관련된 SDGs 이행을 촉진하고자 한다.

반기문재단- 한마음교육봉사단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12월 7일, 반기문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 협약 체결식을 통해, 양 기관은 다문화엄마학교 운영과 해당 가정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등의 보충학습과 문화교육을 제공하는 반기문 한마음 글로벌스쿨 운영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미혼모가정 지원 사업

사업 목적

- 한국 내 미혼모에 대한 사회인식 및 차별 개선
-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한 미혼모에 대한 유관 법률 정보 제공

현재 전 세계의 미혼모에 대한 사회인식 및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는 미혼모와 그의 자녀, 그리고 그 가족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 향상, 권익 실현과 미혼모들의 자존감 회복,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 의지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기문재단 및 'Ban Ki-moon Centre for Global Citizens'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



협력 및 참여 사업

반기문 이사장은 어린이 조선일보 독자와의 만남, The 2020 Aisa Initiative Virtual Gala 인터뷰, 2020 젠더서밋 글로벌, Alphach Forum, Ban Ki-moon Centre for Global Citizens scholars 2020 등에서 기조연설과 기고문을 통해 여성의 권리 존중을 위하여 SDGs 젠더 관련 세부 목표 이행과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리더들의 양성을 위해 청소년의 세계시민교육과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어린이 조선일보 독자와의 만남 (1/28)



UN 사무총장 임기 중 가장 보람찼던 일은 파리기후변화 협약, 지속가능개발목표, 유엔여성기구(UN Women) 창설 등임. 초등학생들도 전기를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는 등의 역할이 가능함. 이러한 일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세계시민이 되는 길임.

UN ESCAP 75주년 영상 메시지 (2/14)



UN 창설 75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청소년의 기후 위기 대처 방법과 지역사회 변화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



초등학생들도 전기를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는 등의 역할이 가능함. 이러한 일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세계시민이 되는 길임.



UN SDSN Youth Global Schools Program

UN SDSN Youth Global Schools Program 지지 메시지 (6/10)



기후 변화와 생태계의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 모든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에의 접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 기회,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미래 세대가 번영할 수 있을 것임. Global Schools Program이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교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전 세계 학교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The 2020 Asia Initiative Virtual Gala 인터뷰(Ban Ki-moon Award의 수상자인 제인 구달) (8/16)



제인 구달 박사는 UN 평화 대사로서, 점점 더 취약해지는 지구 생태계를 부각시키고 오늘날까지 18년 동안 여성의 권한 부여에 기여하며 모범을 보이는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음. 또한, COVID-19가 지구와 인류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친환경적이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보다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구축해야 함.

2020 젠더서밋 글로벌 (Gender Summit Global for SDGs) (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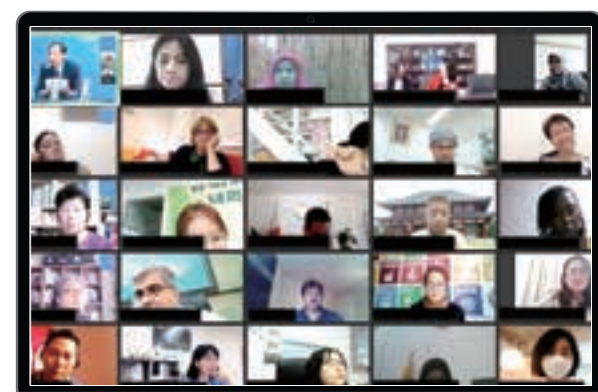


여성과 소녀들이 소외될 때, 이들은 사회와 정책에서 제외됨. 여성의 권한 부여와 SDGs 젠더 관련 세부 목표 이행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 연구가 중요함. 여성의 권리가 존중받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며,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람.

UNESCO 아태교육원 APCEIU 20주년 축하 연설 (8/25)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환경 교육 제공이 중요함. 환경 위기로 인한 부담을 짊어질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을 환경중심적인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Alpbach Forum 기조연설: “세계를 구하는 방법, 세상의 이목을 끄는 청년들의 활동주의(How to Save the World – Youth Activism in the Spotlight)” (8/25)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지구, 지속 가능한 지구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임.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포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지속가능개발목표 4번째인 교육 및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하고 변창해 나갈 기회를 제공하고자 반기문 세계시민 센터를 설립했음.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힘을 합치는 것을 목표로 함.

UNAI 10주년 기념 축사: “2030년을 위한 학생과 대학 – 행동의 10년이 시작됩니다 (Students & Universities for 2030: The Decade of Action Begins)” (11/18)



2018년부터 시작된 UNAI와 밀레니엄 캠퍼스네트워크(MCN)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함. 이러한 파트너십으로 풀뿌리 수준에서의 개인 행동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동참할 수 있었음. 특히, 750개 이상의 프로젝트 관리, 지역사회 활성화,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에 동참한 밀레니엄 펠로우에 감사함.

Ban Ki-moon Centre GC scholars 2020 축사 (12/11)



비엔나 반기문센터(BKMC)는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설립하였음.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청년들이 인류의 미래임. 해당 장학금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협력으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함.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젊은 리더들의 역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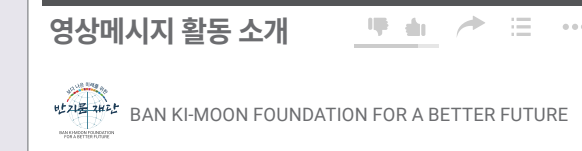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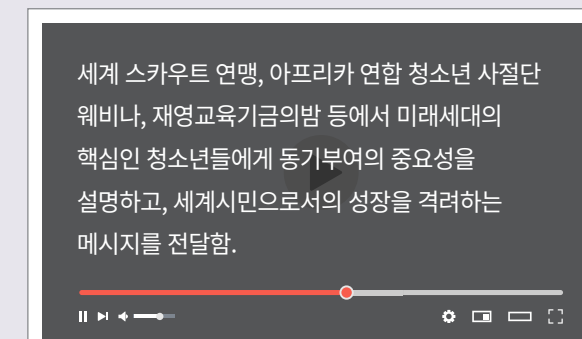


GEMS 연설: “지속 가능성, 교육, 그리고 환경 (Sustainability,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 (12/18)



세계 최빈곤국들은 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또한 일부 부유한 사회에서도 교육 내 불균형이 존재함. 이 장애물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지 않음. 교육이야말로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 모두가 세계 시민으로서 연민과 열정(compassion and passion)을 가지고 행동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EachForEqual’ 참여 (3/8)





05

부록

- 재단 방문 주요 해외 인사
- 반기문재단 기금내역
- 주요 해외 언론 기고문



재단 방문 주요 해외 인사



1/7 Chau Chak Wing
(KINGOLD Group 회장)



2/5 Christopher Robert Hill
(前 주한미국대사)



2/10 Tomita Koji
(주한일본대사)



2/20 Wylbur Chisiya Simuusa
(주한잠비아대사)



2/20 Xing Haiming
(주한중국신임대사)



3/19 Sripriya Ranganathan
(주한인도대사)



5/11 Jerome Kim
(IVI 사무총장)



5/13 Alfredo Bascou
(주한아르헨티나 대사)



6/9 Al-Saadi Zakariya Hamed Hilal
(주한오만신임대사)



6/12 Jacqueline Wambui M. Waiguchu
(주한케냐대리대사)



6/16 Mohammed Hassan Al Hayki
(주한카타르대사)



6/22 Mumtaz Zahra Baloch
(주한파키스탄신임대사)



6/22 Liv Torres
(노벨평화센터 박물관장)

재단 방문 주요 해외 인사



 7/8 James Lynch
(UNHCR 한국대표부 대표)




 7/10 Eric Teo
(주한싱가포르대사)




 7/16 Chaim Choshen
(주한이스라엘 대사)




 7/23 Sripriya Ranganathan
(주한인도대사)




 7/8 Hazem M. Fahmy
(주한이집트대사)




 7/30 Long Dimanche
(주한캄보디아대사)



 8/4 Carlos Victor Boungou
(주한가봉대사)



 8/4 Mohamed El Amine Derragui
(주한알제리대사)




 8/10 Petko Draganov
(주한불가리아대사)



 11/27 Alfredo Bascou
(주한아르헨티나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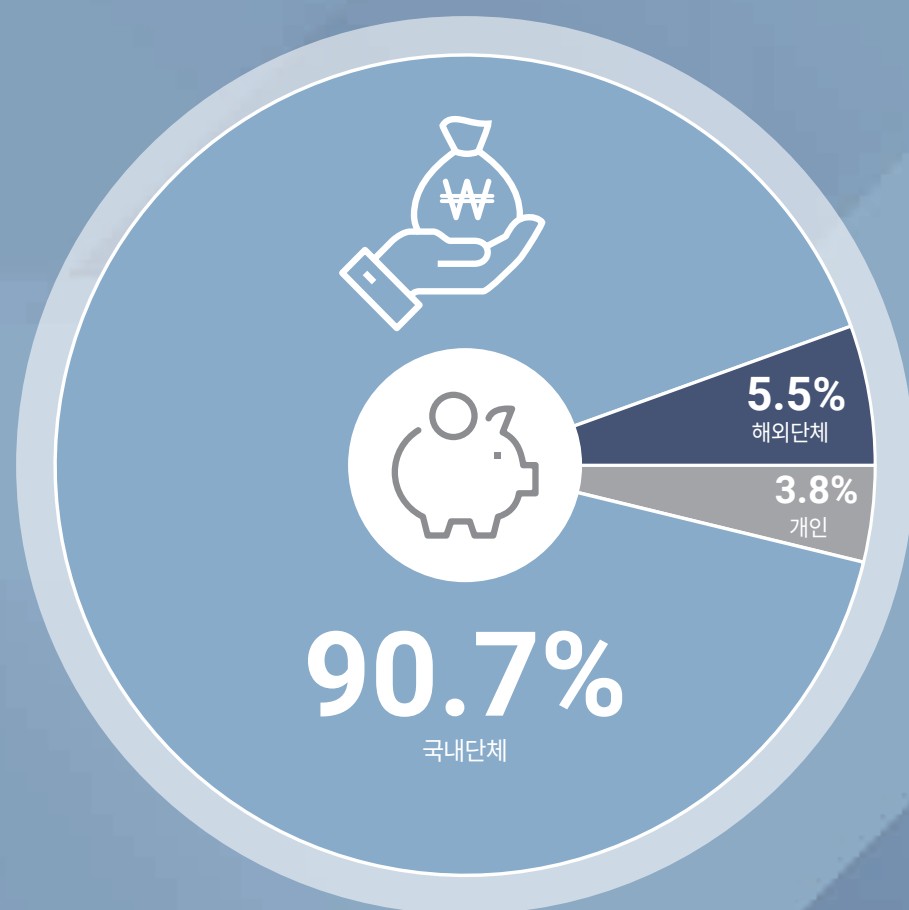
 12/8 Yannick Glemarec
(GCF 사무총장)



 12/14 Pekka Metso
(주한핀란드신임대사)

반기문재단 기금내역

기부금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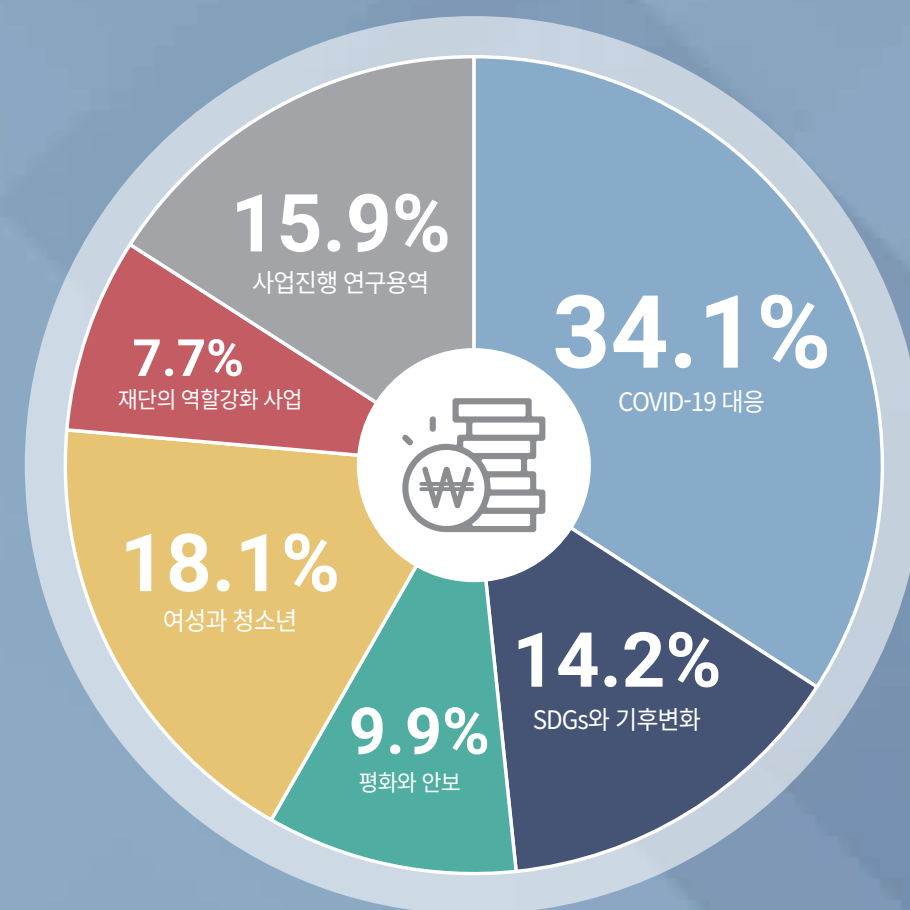
재단법인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은 2020년 한 해 SDGs와 기후변화, COVID-19, 평화와 안보 및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공중보건에 관한 연구와 상대적 취약계층 및 의료진에게 COVID-19 대응 방역물품 기부 등에 많은 힘을 쏟았으며 여성과 청소년 및 SDGs와 기후변화 등 전 세계가 당면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각계 각층에서 반기문재단에 기부하여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반기문재단이 지구촌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반기문재단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2021년에도 세계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용



주요 해외 언론 기고문

반기문 이사장은 세계적 연대와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기반의 COVID-19 팬데믹 극복,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의 지속적인 이행,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등 전 세계에 지혜와 용기를 전하는 기고문을 CNN, Time 100 Community, Newsweek, South China Morning Post, Project Syndicate 등에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연간 활동보고서에서 소개하는 기고문 외에도 The Elders, Club De Madrid, Huffpost, Die Presse, Financial Express, UNK-UK, Die Zeit, The Guardian, Fortune, Red Box, Independent, The Indian Express, Boao Forum for Asia 등 다양한 매체에 세계인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The New York Times

2019-11-07

The Climate Crisis in Terms Trump Can Understand

The president is abandoning America's future by quitting the Paris climate accord.

By Ban Ki-moon and Patrick Verkooijen

Mr. Ban was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Mr. Verkooijen is the chief executive of the Global Center on Adaptation.

Nov. 7, 2019

President Trump made good on his promise this week to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greement. This wasn't a surprise. But it still baffles us. Try as we might, we cannot see how America's interests are served by this decision.

Our climate emergency does not respect borders. California's forest fires will not burn less fiercely, and rising sea levels will not spare Miami or Mar-a-Lago, just because Mr. Trump has chosen to opt out of a treaty of nearly 200 nations that represents our best and only chance of saving humanity from the catastrophic effects of rising temperatures.

Let us put it in language Mr. Trump might understand. If average global temperatures rise by the end of the century by another one degree Celsius, or 1.8 degrees Fahrenheit, there will be no winners on this planet. Only losers.



Firefighters working to contain the Easy fire in Simi Valley on Oct. 30. Credit...Kyle Grillot for The New York Times

And those immigrants the president rails against? Expect the trickle to become a flood. Climate change could force 1.4 million people to abandon their homes in Mexico and Central America, according to the World Bank. That is because one-third of all jobs in the region remain linked to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is making those livelihoods more precarious. The best way to keep climate refugees from the United States' doorstep is to support a vigorous and effective climate agreement that helps protect America's neighbors from the ravages of drought and erratic weather patterns. But Mr. Trump is turning his back on this opportunity.

The Paris Agreement is not a trade agreement. There is no trade-off between Detroit, Youngstown and Pittsburgh, on the one side, and Paris on the other. Tariffs and sanctions will not make this problem go away.

Instead, the Paris Agreement is more like a collective insurance policy, into which we all invest to protect our futures. And like most insurance policies, it makes sound business sense. The best investments we can make right now are those that will protect our food, water and energy sources, our transportation, homes and cities, and our businesses and finances from the worst impacts of climate change.

We must invest to adapt to higher temperatures, rising seas, fiercer storms, water scarcity, wildfires — conditions that are now inevitable. The Global Commission on Adaptation estimates that investing just \$1.8 trillion to build climate resilience over the next decade would yield more than \$7 trillion in net benefits. That is a great return on investment.

In other words, we can either plan now and prosper — or do nothing and pay for the consequences later. It seems to us that Mr. Trump is choosing to do nothing and let the country pay later. How is this smart?

The Paris Agreement is a collaborative project, perhaps the greatest collective undertaking ever attempted by mankind. Is it perfect? No. Is it worth keeping? Definitely. Put bluntly, it is the only weapon we have to fight our climate emergency.

Bear in mind that the Paris Agreement is a work in progress. There are standards and targets to be set, compliance measures to be agreed on, budgets to be allocated. One of the best things about the agreement is that nations have pledged to share the fruits of innovation in low-carbon technologies — for clean energy, zero-emissions transportation, greater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businesses and homes. The United States is a great innovator and the Paris Agreement will undoubtedly be the poorer without its participation. But equally, the country had much to gain by joining in this collective endeavor. Why miss out on the greatest technologic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of our era?

Above all, the world will miss America's talent, leadership and ideas as we map out a low-carbon future. We know American voices will still be heard — notably, the thousands of local and state governments and 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that have made pledg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under a movement called We Are Still In. They are proof that millions of Americans still support the Paris Agreement, even if the current administration does not.

It is not too late for Mr. Trump to reconsider his decision. Staying in the Paris Agreement is the right thing to do, for America's sake and for the rest of the world. Winston Churchill is said to have once remarked that you could always count on Americans to do the right thing, after they'd tried everything else. We hope Mr. Trump proves him wrong and stays in the Paris Climate Agreement — that he does the right thing from the beginning.

Ban Ki-moon was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rom 2007 through 2016 and is deputy chair of The Elders, a group of global leaders. Patrick Verkooijen is the chief executive of the Global Center on Adaptation.

The Times is committed to publishing a diversity of letters to the editor. We'd like to hear what you think about this or any of our articles. Here are some tips. And here's our email: letters@nytimes.com.

Follow The New York Times Opinion section on Facebook, Twitter (@NYTopinion) and Instagram.

Will we learn lessons for tackling climate change from our current crisis?

Opinion by Ban Ki-moon and Patrick Verkooijen
Updated 23:11 GMT (07:10 HKT) April 9, 2020



Editor's Note: Ban Ki-moon served as the eigh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Patrick Verkooijen is CEO of the Global Center on Adaptation, a group that seeks to facilitate climate adaptation by working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opinions in this commentary are their own. View more [opinion](#) at CNN.



Ban Ki-moon



Patrick Verkooijen

(CNN)Crises tend to bring out some of the best and the worst in us. We have watched in awe and admiration as health care professionals have responded with superhuman dedication to the Covid-19 pandemic. We have heard neighbors serenading each other across balconies. Car manufacturers are retooling to produce respirators and face masks that are so desperately needed by hospitals right now. Around the world, 1.7 billion people are staying at home to slow down the spread of the virus, according to The Guardian. Never, it seems, have there been so many visible acts of collective solidarity, and of such magnitude.

But there have also been acts of craven selfishness. Cyberattacks on Spanish hospitals, where thousands are in intensive care. Profiteering and hoarding of life-saving medical supplies. World leaders who put their citizens in danger by denying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What this shows is that as individuals and as communities, we have a choice in how to respond to global threats. For the greater good we can accept restrictions on how we live, even at a cost to incomes and livelihoods -- as 20% of the global population is doing right now, as The Guardian wrote -- or we can respond selfishly, seeking only what is right for us, rather than the collective good of humanity.

These choices will continue to be important once Covid-19 is tamed. Because what should be clear is that other threats, most notably our ongoing climate emergency, have not gone away during the pandemic.

Many experts see a link between the two. Inger Andersen, head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says Covid-19 is a "clear warning shot" given that 75% of all infectious diseases come from wildlife, and climate change and the destruction of natural habitats are putting humans into ever-closer proximity to animals.

"Nature is sending us a message," she says, as The Guardian reported. Gernot Wagner, a climate economist

at New York University, tweeted that the virus is "climate change on warp speed."

Pope Francis, meanwhile, praying in a deserted St. Peter's Square on March 28, said: "nor did we listen to the cry of the poor or of our ailing planet. We carried on regardless, thinking we would stay healthy in a world that was sick."

If nature is sending us a message, what is it saying?

It is telling us that we need to heal the planet if we want to heal ourselves. That we must be respectful of the boundaries between humans and other species; that we need to adapt and alter our behavior. And while we make these changes, we need to build our societies' resilience to emergencies of all kinds, because our current planning and preparation for viruses, for rising seas and other effects of climate change, are not enough.

Whether you are dealing with a deadly virus or extreme weather, prevention is always better than cure. It makes economic sense to build greater resilience against climate change now, in the same way that we must strengthen our health care systems before the next pathogen strikes.

The Global Commission on Adaptation estimates that investing just \$1.8 trillion in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limate change over the next decade could generate \$7.1 trillion in total net benefits. Investment in green techn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could help put our coronavirus-shattered world back together again. Renewable energy instead of coal; natural drainage systems instead of more concrete to soak up water and avert floods; reforestation instead of land clearances.

Around the world, governments are launching gigantic stimulus packages to prop up their economies. But these are being targeted exclusively within national borders; more attention must be paid to helping those around the world who need it most.

It is also clear to us that to avert disaster, countries will need to help each other. World governments urgently need to mobilize a global fund to help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cope with Covid-19. The precedent is there: In the aftermath of the Ebola epidemic,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a trust fund and l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recovery priorities. We believe the whole UN system, the World Bank,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all regional development banks should come together again to address the aftershocks of the pandemic, including the global economic fallout.

If the virus is a shared global challenge, so too should be the need to build resilience against future shocks.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the least prepared for the arrival of Covid-19, just as they are most vulnerable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To avoid a protracted global recessio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ecretary-General Angel Gurría has called for a response "akin to the last century's Marshall Plan and New Deal -- combined." If it does come about, we hope it will not forget those in the developing world. For how these vast sums are invested will determine our future.

Governments could opt for business as usual, perpetuating our old way of life, or they could heed nature's Covid-19 warning and kick-start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future. This means investing in life-supporting systems such as a stable climate, fresh air and clean water, and the preservation of natural habitats.

The lifesaving benefits of building climate resilience are already evident in countries that have invested in early-warning systems against cyclones and hurricanes. Tropical cyclones kille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n Bangladesh, a low-lying delta country, throughout the 20th century, but thanks to investment in warning systems, evacuation drills and strong shelters, millions of people can now shelter in safety before cyclones strike.

This pandemic is far from over, but it has already brought certain truths (which should have been evident) into stark relief: that viruses do not respect borders; that without solidarity, we will not defeat this pandemic, because we are only as safe as our most vulnerable people; that scientific knowledge and advice matter; and that delay is deadly. The same lessons hold true for our climate emergency.

If we are wise, we will start acting on these lessons now.

I Wa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 Here's How the Coronavirus Crisis Can Bring the World Together



BY BAN KI-MOON
APRIL 16, 2020 7:01 AM EDT

There is no precedent in living memory for the challenge that COVID-19 now poses to world leaders.

The disease stands poised to cause a far-reaching economic depression and a tragically high number of deaths. Its impact will be felt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To combat this historic threat, leaders must urgently put aside narrow nationalism and short-term, selfish considerations to work together in the common interest of all humanity.

As a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U.N., I support the call from my successor António Guterres for an additional \$2 billion in humanitarian aid to tackle the pandemic. This aid—which will contribute to key efforts such as developing and distributing tests, treatments and vaccines—is essential to reducing the virus's spread.

I also urge global leaders, led by the U.N., to consider how to develop a global governance system that can cope more effectively with any pandemic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They should recommit to the values of the U.N. Charter, and use other multi-lateral bodies—including the G-20,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to proactively support the world's most vulnerable populations.

It is encouraging that G-20 leaders last month committed to implementing any necessary measures to stop the spread of the virus and to injecting \$5 trillion into the global economy. But these commitments need to be translated into immediate, proactive assistance to vulnerable countries in Africa,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Further, to ensure an effective recovery, this cooperation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and sustained for some time. It is also crucial that border restrictions and closures, as well as pre-existing sanctions for countries like Iran, which have been severely affected by the pandemic, do not prevent critical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from being transported to where they are most urgently needed.

COVID-19 shines a harsh light on the many profound inequalities that scar our planet. Disparities of wealth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now risk being exacerbated even further by the pandemic.

Similarly, the constraints many countries have imposed on movement and assembly are understandable and necessary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but legislators and judiciaries must bear in mind that, if not carefully instituted, these restrictions risk accentuating the marginaliz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refugees, migrants and racial minorities.

Respect for human rights, solidarity and justice need to be at the heart of our response to COVID-19. We all have a responsibility as global citizens to stay vigilant and not allow authoritarian regimes to exploit the crisis to roll back rights and democratic safeguards. Otherwise, we risk the prospect of a future where rich countries have recovered and reinstate “normal” patterns of social and economic interaction, but poorer states remain ravaged, with their citizens excluded and subject to new forms of discrimination.

Even before COVID-19 took hold, we were confronted by the existential threats of climate change and nuclear weapons. In January, I attended the unveiling of the “Doomsday Clock” in Washington, D.C., when the clock’s minute hand was moved closer to midnight than ever before.

The clock is still ticking, and these threats have been further aggravated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But if the world can show the necessary courage and leadership today, we will be better placed to tackle equally grave challenges tomorrow. Ban is the deputy chair of the Elders, an independent group of global leaders, and served as Secretary-General of the U.N. from 2007 to 2016

This article is part of a special series on how the coronavirus is changing our lives, with insights and advice from the TIME 100 community. Want more? Sign up for access to TIME 100 Talks, our virtual event series, featuring live conversations with influential newsmakers.

CONTACT US AT LETTERS@TIME.COM.

Ban Ki-Moon: The Lesson from COVID-19 is that We Need More, Not Less, Global Cooperation / Opinion

BAN KI-MOON
ON 6/1/20 AT 12:34 PM EDT



Global leadership has been sorely absent in the face of the gravest threat to human life in more than a century. Instead of unity, there is political acrimony. Instead of heeding the advice of experts, they are sidelined, undermined. Instea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 is finger-pointing. COVID-19 has become a blame game of international politics.

I need not dwell on the consequences of this colossal, collective failure of global leadership. The pandemic is still spreading, its death toll now in the hundreds of thousands. The global economy is at a standstill.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are unemployed, and as hunger grows, so will civil strife. According to the UN, a quarter of a billion people may starve this year. What progress we have made on reducing poverty and malnutrition and our other social development goals could be wiped out within months.

In our hyper-connected world, where misinformation spreads faster than the virus, this blame game will get us nowhere. Tweets are no substitute for good policies and political action. It's time to put an end to political bickering and focus on the job at hand: containing the pandemic. To further politicize the current health emergency is not only immoral and irresponsible; it is almost criminal.

Trust is the key to building an effective global response to COVID-19. We know that measures to contain the virus have been most effective in countries where citizens have a high degree of trust in their governments. And we know that global co-operation has succeeded in stopping deadly

pathogens in the past. Smallpox was eradicated with a global immunization campaign l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t a critical moment of an Ebola outbreak in Africa in 2014, the UN Security Council pronounced it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dispatched its first ever mission to combat a disease.

If we have been unable to apply the lessons learnt from previous epidemics, it is because trust between governments, and in our multilateral institutions, is at its lowest ebb. Never have we needed it more. Only by working together will we be able to devise rapid responses to health emergencies such as COVID-19. Shutting down borders and cities, hoarding medical supplies, every man for himself: that is not the answer.

We need new ways of working to rebuild trust in collective action for the common good. A global platform, where best practices and success stories and the most updated data and information can be shared, would be a good place to start. The platform would encourage all stakeholders, including health professionals, researchers,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policy-makers, to engage in a professional and non-partisan way. It would be a first step towards improving global coordination on rapid responses to health emergencies, while building consensus on how to prevent or deal with future ones.

We ne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o, on how to reopen our economies and our borders safely. We need commonly agreed international rules to allow travel to resume without again becoming a vector for the deadly virus. And to achieve this we need to tone down the politics and maximize openness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best available information and data.

Secondly, when the time comes to rebuild, we must rebuild better, with a different set of priorities. As Pope Francis reminds us, nature never forgives. How can we presume to remain healthy in a world that is sick? We need to invest in public health, in social safety nets such as a minimum living wage, in education, sanitation and clean water, in green energy and climate action. In short, we must revive our economies by investing in people and the planet. We can no longer pursue short-term economic growth at the expense of everything else. The Green Deal proposed by the European Union is timely, but it is not a quick fix. In Europe and elsewhere, we need a shift towards long-term green growth.

It is critical to design our Covid-19 recovery for green challenges

Global society has been violently rocked but we must collaborate to change behavior



Ban Ki-moon JUNE 17 2020

The writer is a former UN secretary-general. Heading the UN gave me a new perspective on the world. In a short time, I saw glaciers melting in Antarctica, devastating floods in Thailand and Pakistan, the 2011 tsunami in Japan and Hurricane Sandy in America. In September 2011, I met a young boy in the South Pacific island of Kiribati who could not sleep because he was worried that the rising sea would destroy his home. I learnt that the biggest challenges humanity faces are interlinked. I saw that surviving and emerging from a crisis depends upon our ability to work together, beyond borders and national interests. And I understood that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will ultimately decide our fate. If we fail to keep the equilibrium, the most vulnerable will suffer first and most.

These lessons have become front of mind again as Covid-19 spread quickly around a world that is more connected than ever, yet increasingly divided and inward-looking. The pandemic has shaken our global society to its foundations and tested our ability to collaborate. Now, world leaders are committing unprecedented funds to recovery packages. Their choices will shape our economies and societies for decades, and determine whether we breathe clean air, create a sustainable low-carbon future and possibly even survive as a species. The current pandemic has been brutal, but the challenges ahead will be worse unless we design our recovery to address them. Air pollution has made the impact of coronavirus significantly worse and lies behind 7m deaths every year because of its links to a host of other conditions. It has many of the same root causes as climate change, which threatens our existence. Equally, Covid-19 has shown what is possible when humanity is faced with a tangible and fast-moving threat. Air quality

improved nearly instantly as a result of government lockdowns. The rapid responses and widespread compliance show we can change our behaviour if the health imperative and political mandate exist. We know people want change. A new YouGov poll commissioned by the Clean Air Fund shows at least two-thirds of citizens in diverse locations around the world — Bulgaria, India, Great Britain, Nigeria and Poland — support more laws and enforcement to tackle air pollution. As economies are restarted, a return to toxic air would simply replace one health crisis with another. Governments will never have a better chance to address these issues. They can structure bailouts to wean the sectors they save off fossil fuels. They can prioritise green jobs, renewable energy and clean technology. These measures would pay for themselves many times over. There are also specific steps they can take on clean air. Leaders of some of the world's biggest cities, including London and Milan, are already repurposing city centres to use cleaner energy and technology. They are encouraging us to get out of our cars, to make more journeys on foot, by bike or — in the long term — via public transport, by investing in infrastructure that makes this possible. These ideas need to be expanded and repeated elsewhere, with backing from national governments.

Yet, we could miss this clear opportunity. Governments in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hina have lifted environmental restrictions during the crisis; continued relaxation or simply returning to business as usual would be disastrous. In my country of the Republic of Korea, we are introducing a Green New Deal that seeks a new way of life after the pandemic. We want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air pollution alongside other elements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ch as inequality and poverty, and to look beyond our borders. That is why we are increasing co-operation with Japan and China to address regional air pollution. But these promising first steps will not be enough. In July, G20 finance ministers will meet to review their collective response to the pandemic. On September 7, the UN is organising the first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And attention is turning to the COP26 summit in 2021, which feels like our last chance. Governments must seize these opportunities to put clean air and climate justice at the heart of recovery plans, in line with the 2015 Paris climate agreement. This will not be easy, but it can and must be done. The pandemic has taken a heavy toll, but it could be just be a taste of things to come. We owe it to ourselves and future generations to build back better.

Nuclear proliferation needs a multilateral response just as much as the coronavirus pandemic

- The global nuclear weapons stockpile still stands at 13,400 warheads even three decades after the Cold War, with tensions rising across the world
- Pious words about Hiroshima and Nagasaki will ring hollow if today's nuclear powers do not take concrete steps to reduce their arsenals



COVID-19 has shone a light on the acute vulnerabilities of our interconnected world. No country can tackle the pandemic alone, regardless of its size, strength or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The only way to overcome the threat i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The same principles apply to an equally grave threat to the future of humanity, albeit one that rarely dominates the news. 2020 marks the 75th anniversary of the dropping of atomic bombs on Hiroshima and Nagasaki.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has been effective for the past 50 years, with 190 countries taking part. Yet a nuclear conflict remains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day. According to the latest report fro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the global nuclear weapons stockpile still stands at 13,400 warheads even three decade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ensions are alarmingly high between the two nuclear states of China and India after the deadly clashes between troops in Ladakh's Galwan valley. Furthermore, India and its other nuclear-armed neighbour Pakistan came frighteningly close to war in 2019 over the disputed territory of Kashmir. When it comes to the Korean peninsula, US President Donald Trump's attempts to build a personal rappor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ve yielded nothing in terms of concrete progress toward 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sation. On

the contrary, North Korea continues to strengthen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has never given up its ambition to acquire de facto nuclear status. All of this bodes ill when COVID-19 consumes world leaders' attention and has put on hold the habitual rhythm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diplomacy. The nuclear threat was already growing in significance before the pandemic after deliberate assaults on the multilateral system launched by nationalist, isolationist and authoritarian leaders. The US decision in 2019 to withdraw from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was a myopic and retrograde move that harks back to the Cold War and a dangerous arms race on European soil and beyond. In recent weeks, we have seen further alarming signals from Washington that weaken the global architecture of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including the announcement it intends to withdraw from the Open Skies Treaty and even reports that it is considering a resumption of nuclear testing after a 28-year moratorium. This year should have also been the occasion fo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Review Conference, which had to be postponed because of COVID-19. All parties to the NPT should not waste the time afforded by this postponement and take concrete steps to meet their obligations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Those bearing the heaviest responsibility are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which have consistently failed to live up to their obligations on disarmament under Article 6 of the NPT. States should exert whatever pressure they can to convince the US administration to agree to extend the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New START) for five years. Its expiry would mean no binding agreement on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nuclear superpowers —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 and thus create a serious risk to global peace and security. The US has suggested it wants to broaden New START to include China. While it is important for China to be engaged in the global disarmament discussion, it is disingenuous to make New START's extension dependent on Beijing, given that its stockpiles are one-twentieth the size of those of the US and Russia. The US should instead accept the offer of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immediately agree to an extension. China's inclusion can be separately negotiated subsequently. An effective, rules-based multilateral system is the world's insurance policy against existential threats, from pandemics to climate change to nuclear weapons. Pious words about the victims of Hiroshima and Nagasaki will ring hollow if today's nuclear powers do not take concrete steps to reduce their arsenals and invest in a robust global arms control architecture.

Returning to Multilateralism

BAN KI-MOON

For 75 years, the United Nations has provided an imperfect but unrivaled global forum for advancing peace, prosperity, and human rights, standing as a bulwark against another world war. But the COVID-19 pandemic presents the world's premier multilateral body with its biggest challenge yet.

NEW YORK – COVID-19 has shone a light on the acute vulnerabilities of a deeply interconnected world. No country, regardless of its size, wealth, or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can tackle this crisis alone.

Owing to the pandemic,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is month is being held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with heads of state participating “virtually” rather than traveling to New York City. The unique nature of this year’s gathering should serve as a reminder that the only way to overcome the threat of COVID-19 i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ransparency, and adherence to shared rules and regulations.

It is a poignant irony that the pandemic has struck on the UN’s 75th anniversary. Born from the wreckage of World War II – a wholly human-made calamity – the world’s premier international forum embodied post-war leaders’ determination that future generations must be spared from the kind of suffering they had witnessed.

In the Middle East and other conflict-riven regions, the UN and its principle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remain indispensable for finding long-term, sustainable solutions that will guarantee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re the bedrock of our global order, providing a crucial framework for defending rights and exercising power in the face of global challenges.

We can see this clearly i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which has lasted for almost as long as the UN itself. The best solution will be two states – Israel and Palestine – for the two peoples, based on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e-1967 borders and in accordance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42 and 2334, among others.

The recent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Israel and two Gulf countries,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Bahrain, is a significant political development that I hope can help overcome decades of estrangement and mistrust. But I still believe that the only way to achieve true “normalization” between Israel and the Arab world is for all parties to work toward a durable two-state solution that delivers peace, justice, dignity, and security to Palestinians and Israelis alike. People’s inalienable rights should never be bartered away by others.

In 1945, many hoped that the world had finally learned the lessons of two disastrous world wars. In the words of the UN Charter, the body was created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and to pursue peaceful and inclusive paths to global prosperity and democracy. The web of UN-centered international covenants and institutions that have been established since then is far from perfect. Yet, for more than seven decades, it has decisively supported the pursuit

of peace, security, human rights, and economic and social improvements around the world.

To highlight this legacy, The Elders – a group of independent global leaders founded by Nelson Mandela, of which I have the honor to serve as Deputy Chair – recently released a report on the defense of multilateralism. In it, we issued five calls to action for today’s leaders:

- Recommit to the values of the UN Charter;
- Empower the UN to fulfill its mandate for collective action on peace and security;
- Strengthen health systems to tackle COVID-19 and prepare for future pandemics;
- Demonstrate greater ambition on climate change to meet the Paris agreement targets;
- Mobilize support for all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ll countries must recognize that the only way to achieve these objectives is through effective multilateralism, which is ultimately in everyone’s interest. More often than not, the UN’s failure to meet its stated goals has been the result of member states – particularly but not exclusively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Russia, China) – not meeting their responsibilities. When countries place narrow national interests above common priorities, everyone loses out.



To be sure, this past July, I welcomed the UN Security Council’s unanimous adoption of Resolution 2532, which called for a global ceasefire to avert further humanitarian catastrophes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I also strongly supported this initiative when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first proposed it in March. Yet I was disappointed to see so many valuable months wasted in arguments over the details of the text.

Squabbles over semantics in the face of bloody conflicts and an unprecedented pandemic sent a terrible message to the global public. Beyond the direct health effects, the economic fallout from the crisis will be long-lasting and severe, creating ripple effects that will be felt in many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parts of the world for some time to come. This was no time to play diplomatic hardball.

Since then, the World Food Programme has warned that we may be headed for the worst humanitarian crisis since WWII, with as many as 600,000 children likely to die from famine and malnutrition in hard-hit countries like Yemen, Somalia, Nigeria, and South Sudan.

The COVID-19 crisis is a somber reminder of our common human bonds and vulnerabilities. If we fail to respond to the pandemic and other shared threats with a renewed sense of solidarity and collective action, we will have dishonored the victims of the virus and betrayed the hopes that the UN’s founding generation had for us.

주요 해외 언론 기고문 리스트

	The Doomsday Clock Shows we are closer to global catastrophe than ever before – this needs to be a wake-up call for the world(1/23)
	The Elders warn new US ‘peace’ plan for Middle East is unworkable(1/29)
	The Elders call for global resolve and solidarity in the fight against COVID-19(3/18)
	Protecting India: Nation must stay with vision of founding fathers to fight threat to secular democracy(3/20)
	GLOBAL LEADERSHIP FOR THE COVID-19 PANDEMIC IS THE ONLY WAY TO LEAVE NO ONE BEHIND(CLUB DE MADRID (4/3)
	Coronavirus Is A Warning To Us All: We Must Heal Nature In Order To Heal Ourselves(5/2)
	The Elders call for new Middle East peace plan to counter Israeli annexation threat(5/11)
	The Elders call for bold multilateralism to drive global response to COVID-19(5/21)
	OPINION: To avert a COVID-triggered famine, our global food system need to change(5/22)
	A Call to All Governments: Work Together Now to Stop Cyberattacks on the Healthcare Sector(5/26)
	ASEAN must act to save Rohingya refugees in the Bay of Bengal(5/26)
	It’s in our hands(6/3)
	OPINION: Investing in digital agriculture can help Africa beat this pandemic(7/1)
	The Elders urge European leaders to stand firm on Israeli annexation threats(7/3)
	OP-ED: Chairman Ban calls on Germany’s leadership to guide EU towards climate-friendly development(7/17)
	I’m bewildered that Trump would imperil America by abandoning the Paris agreement(7/27)
	America needs a major infrastructure overhaul – and it must be green(7/29)
	To Honor the Victims of Hiroshima and Nagasaki 75 Years on, We Must Lay Down Our Nuclear Weapons(8/4)
	The Elders call on world leaders to take action or risk nuclear catastrophe(8/5)
	A Lette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8/17)
	Saving the COVID Generation(8/18)
	Open Letter in Support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9/21)
	SDGs: building back better(10/23)
	A forum for the Shared Future of Asia and the World(10/26)
	America, we’ve missed you. Now please get your act together on climate change(11/13)
	Abandoning aid target sends the wrong signal before Cop26(11/26)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후/원/안/내

후원계좌: 국민은행 90739-90-9456 (예금주: 재단법인 보다나은미래를위한반기문재단)

“반기문재단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모두
재단의 발전과 목적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후원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739-9094 / 이메일 : bkmfoundation@bf4bf.or.kr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2020 연간 활동보고서

발행인 반기문
발행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발행일 2021년 4월
디자인 바이제이디자인그룹(02.717.3768)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33 내자빌딩 5층 (우:03176)
전화 02-739-9094
팩스 02-739-9095
이메일 bkmfoundation@bf4bf.or.kr
웹사이트 http://bf4bf.or.kr/

※ 이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2020 연간 활동보고서

2020 ANNUAL REPORT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33 내자빌딩 5층 (우:03176) 전화 02-739-9094 팩스 02-739-9095 웹사이트 <http://bf4bf.or.kr/>